朝鮮日報

購讀料 一部四錢 一個月八十錢 一個年先金九圓 …
廣告料 五號活字一行金二十錢 …
編輯兼發行人 金容熙
印刷人 金邦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長電話光化門三七二番 振替口座京城四○九九番

中華八學校의 閉校를 聞하고

軍閥의 專橫을 慨嘆
文明의 滅亡을 憂慮

中華의 國立八學校가 政府에서 經費를 支撥하지 아니함을 因하야 一齊히 閉校를 宣言하엿다함은 本報에 旣히 報道한바어니와 中華의 新紙를 從하야 그 詳細한 顚末을 據하건대 北京大學을 爲始하야 美專、農大、法大、工大、師大、女高師、醫學等八個學校 職員이 會合하야 討議한바 今回政府에서 支出한 十二萬圓은 一個月經費의 五分一에 不過하야 到底히 維持할 希望이 無함으로 不得已하야 宣言을 發佈하고 閉校를 斷行한다하더니 更聞한 바를 據하건된 以上八校中五校는 去十九日부터 開校하엿스며 北京大學과 法制大學과 醫學專門校는 以前부터 僅々히 閉校함에 至하엿다 하니 以上情形의 大槪를 想像하건된 敎育界의 現狀이 極度로 零星함은 無違한 事實인가 無疑하도다 우리는 朝鮮人이요 中華人은 中華人이라 우리가 우리의 現地步에 在하야 中華人의 校門을 閉鎖하고 아니함에 무슨 興賦比를 論辯할 餘地가 有하리요만은 學問은 文明을 造出하는 首善의 地인티 全國靑年의 精華를 萃集하는 北京校況이 如此함을 聞한 吾人은 甚히 同情을 禁抑하지 못할뿐이아니라 現在와 및 將來에 東洋文明의 重要한 成分이 될 中華學界가 如彼함이 決코 東洋의 福利가 아니며 또는 何보다도 各該學校가 軍閥의 專橫하는 流毒을 偏受하야 저럿듯 悽慘한 境界에 至하엿슴을 反覆하야 思惟할진된 中華人의 悲哀와 우리의 處地를 비록 同一한 性質로 看做치는 못할바이나 彼此間에 同情할 點이 絶對로 無타하기 難하다 同時에 聊히 一言으로써 中華學界의 當局者를 致慰하며 中華의 軍閥은 勿論이오 世界何國을 勿問하고 長槍大劍으로써 雄을 稱하며 覇를 爭하는 殺人鬼들에게 그 禍心을 悔改하기를 致勸코저하노라 中華의 現今財政의 形勢로 論하면 何機關이든지 源々히 接濟가 無한 바이어니 八個學校의 經費를 支給하지 못하야 校門을 閉鎖한다함이 極히 不常한 事實인 觀이 有하야 足히 怪異하다 云할바가 아니나 軍餉浪用의 積欠은 屢三個月에 不過하고 敎育費의 支給치 아니함은 九個月을 經過하엿스며 軍隊費用은 幾十萬幾百萬을 如何한 方法으로 借貸하여서라도 塗抹하야 將士가 解散하거나 營舍를 倒閉하거나 한 結局을 招致하지는 아니커늘 敎育費는 그 需要하는 額數가 三四十萬圓에 過치 못함도 不拘하고 그것을 不理의 域에 放棄하야 畢竟 閉校로써 最後의 解決法을 作할 運命에 至하게 하엿스니 그 政治의 根本主義가 若此하고오히려 敢히 國利民福을 說道하며 和平統一을 夢想하면 天下에 엇지 이러한 理致가 有하리요 此로 因하야 우리가 한가지 思考할바는 有하니 그것이 何이냐 하면 政治의 善惡과 施措의 適否를 言코저함에 現今 中華를 標準함은 도리혀 無意味한 感이 有한즉 彼에게 對하야 아직은 改悟하기를 企待할 뿐이요 他法이 無하거니와 目今에 歐亞를 縱論할지라도 그 政府의 勢力이 各々 不同하고 文化의 程度가 個々히 相異함으로 政治上에 表現되는 成績에 多少의 優劣이 有하야 一槪로 論斷하기는 不得한바이어니와 아직까지 敎育政策이 軍事政策보다 先頭에 居하지 못함은 姑捨하고 兩者가 同等의 地位를 占得하지 못함이 事實이니 外他는 且置하고 文明이 가장 老熟하엿다는 歐米의 情形을 驗察할지라도 小學時代의 義務敎育을 除하고 그 以上程度로 言하면 事實上全館人民이 同一한 敎育을 授受할 便宜가 有하냐하면 그 必然할것을 絶對로 斷言치 못할바이니 此는 人民各個의 經濟가 不一한 關係도 有하나 中學大學等設備가 能히 一毫의 缺點이 無하게 整備하지 못함은 爲政者의 責任이아니라 言키 不能한바이어늘 年々마다 列强의 政界消息을 綜合하여 多部分이 모다 戰艦을 改造한다 軍港을 修築한다 飛行隊를 編成한다는 等豫算案의 實行뿐이요 敎育을 如何히 改善한다 學校를 如何히 增設한다는 傳聞은 晨星보다도 寥落하니 此로써 推看하면 人類의 劫運을 快히 消除할 時期가 到底히 遙遠하다할지라 그런즉 中華의 國立八學校가 閉校를 宣言함을 엇지 한갓 中華人의 獨特한 過失이라 하리요 彼도 또한 現代政治의 主義下에서는 或有할 例事로 看做함이 可하다할지니 만일 慈眼과 婆心으로 世界를 考察할진된 참 可哀한 現狀이라할지로다 請컨된 世界의 爲政者여 軍閥의 專橫하는 末弊가 如此함을 깁히 商量하야 文化에 盡力하고 禍胎인 軍政을 廢除하거나 減縮하야 人類의 大同平和를 亟謀하라

社會主義의 學術的考察(二)

何故이냐 하면 天草의 騷亂以來로 日本民은 基督敎에 對하야 不少한 反感을 가젓든 바닭이다 萬一 基督敎가 天草騷亂과 갓튼 必然的 關係를 有하엿다 하면 이것은 大矛盾이며 無政府主義와 갓튼 것은 한 理想이오 그 中에는 何等의 危險分子를 有한 것이 아니다

國家를 否認하는 點에 잇서서 『사ᄂ듸카리슴』은 無政府共産主義와 同一하다 『사ᄂ듸카리슴』은 資本家와 勞働者와의 間에 在한 利害의 衝突은 到底히 調和할 수 업는 것을 말하고 終히 勞働階級은 資本家에 對하야 어대서지던지 戰鬪를 試코저 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現在의 國家는 恒常 資本家擁護를 爲하야 努力하는 것인 故로 『사ᄂ듸카리슴』은 公然 國家를 否認하게 되엿다 그리하야 彼等은 國家를 廢止하기 爲하야서는 如何한 暴力手段을 使用하드래도 無妨한 것을 主張하엿다 佛國에 在한 『사ᄂ듸카리슴』의 首領 『소ㅡ레ㄹ』와 如함은 반다시 暴力手段을 使用하는 點에 잇서서 贊成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階級鬪爭의 必要한 것을 說하며 또한 이것을 獎勵하엿다 『사ᄂ듸카리슴』의 가장 盛한 것은 佛國이나 그 團體가 처음 생긴 것은 一八九五年이엿다 只今佛國에 在한 勞働者의 約二分의 一은 이 團體에 屬하엿다 佛國에 在한 『사ᄂ듸카리슴』한 地位는 『아이、싸블유、싸블유』라는 名稱을 使用하나 이것은 世界에 在한 產業勞働者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一九○三年 『코로라도』洲에서 西部抗夫同盟의 『스트라이크』가 처음으로 이 名稱을 使用하게 되엿다

組合社會主義는 產業界의 管理를 全部勞働組合의 手에 引受하다는 點에 잇서서는 그 『사ᄂ듸카리슴』과 意見을 同一하게 하엿스나 그 異한바는 國家를 認한다는 點에 잇다 『사ᄂ듸카리슴』은 單히 生產者의 立場에서만 社會를 觀察하나 그러나 組合社會主義는 同時에 消費者인 立場에서도 觀察하는 것이다 그런故로 組合社會主義는 生產으로써 勞働組合의 存在를 觀察하는 同時에 消費者의 代表者로써 國家를 是認한다 그리하야 政府의 必要한 外의 費用은 一切勞働組合의 手로써 寄附한다는 것이다 萬一勞働組合과 政府와의 間에 一致의 行動을 할 만한 必要가 잇슬 때에는 兩方으로부터 委員을 選擧하야 協議會를 組織하게 된다 如斯히 國家의 重要事件은 協議會의 解決을 經하야 實行되는 것이다

性的制度와 男女의 地位 (一七)

本節의 初頭에서 述한바 觀念이 支配하는가 衝動이 支配하는가하는 問題는 哲學者와 宗敎家이며 藝術家에 依하야 여러 解釋을 試할지라도 性的結合의 事實은 衝動이 支配한다는 事實을 如何할 수 업는 것이다 一方으로 一夫一婦의 道德이 形式的으로 存在하고 他方으로는 亂婚을 行動的으로 承認하는 것은 道德的으로는 解釋하지 못하고 衝動的으로만 解釋하는 事實이다

一一

그는 衝動의 解放이다 制度는 衝動을 統御하라는 約策을 가진 者임으로 衝動의 自由는 곳 制度의 破壞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 制度의 崩壞에 對하야는 前項에서도 說明한바이지마는 그것이 性的衝動의 解放에 歸着한 事實은 同時에 男子專制의 社會制度가 崩壞하는 事實과 반드시 關聯이 되야 잇다

性的衝動의 解放은 決코 그것만이 突然히 發生할 것은 아니다 그는 一般의 衝動生活이 固定한 制度의 壓迫을 被하야 人類가 因襲的 準據로부터 脫出치 못하는 境遇를 당하야 回復하랴는 意味로 一般衝動의 解放을 叫號하는 것과 關聯된다 女子의 生活이 在來의 制度에 依하야 束縛을 被한 서에 女子가 特別히 生活의 壓迫을 感하게 된 것은 要컨대 그 制度가 女子의 生存에 不適한 까닭이다 女子가 그 制度下에서 生存의 安定을 失한 것은 女子의 主觀的 原因에 甚因한 것이 아니오 女子로 하야금 그 制度下의 生活에서 困難을 感케 하는 客觀的 事情이 잇는 까닭이다 그는 即 經濟的 事情이다 이 經濟的 事情은 女子로 하야금 在來의 保護下에서 家族制度의 組織下에서 生活上의 困難을 感케 하엿다 換言하면 女子는 漸次로 그 傳統的의 安全한 地位를 喪失하고 마럿다 即 制度가 그들에게 寄與한 女性의 特別한 地位는 抵抗하게 되얏다 그럼으로 現今까지의 女性에 對한 特別한 地位라는 것은 要컨대 男子專制의 組織에 基由한 生殖上의 任務이엿다 이 任務는 生殖以外의 人間的 衝動을 女子에 對하야 殆히 絶對로 禁壓한 것이다 換言하면 男子는 生活의 表現으로 現在에 解放되야 잇는 여러가지 衝動이 女子로서는 도리혀 反社會的의 罪惡이라는 意味에서 抑止를 被하게 된 것이다 例하면 智識慾이 有하얏다던지 野心을 抱하얏다던지 手腕에 富하다는 것은 男子이면 무엇보다 羨望할 事實이지마는 女子이면 그는 極히 不緊한 것으로 되야 잇다 要컨대 女子는 人間的 衝動의 全部가 (生殖의 衝動을 除하고) 社會的으로 抑止를 被하얏다

平和五週年을 回顧하는 世界經濟觀 (一○)

此種不規則의 經濟興奮과 經濟衰落은 모다 國家나 社會나 人民에게 損害를 大被케하는 것이니 歐洲에 對한 債權을 取消코저 함은 이와 가튼 不規則의 興奮과 衰落을 免하자는 것으로 今日米國의 對外한 經濟政策의 最善良한 것이라하는도다

三、歐洲列國을 强迫하야 債務를 償還케함은 歐洲列國의 對米惡情을 惹起하며 國際의 危險을 引起하는 것이 米國이 開闢할 最初부터 來居한者는 모다 歐洲各國의 人民으로 或은 政府의 壓迫을 不滿히 여김이 잇고 或은 信敎의 自由를 得코저 하는 것도 잇스며 或은 生活의 經路를 求한 것도 잇서 一次米國에 來到하면 手中에 寸鐵도 업시 다만 歐洲各國의 協助를 全恃하야 利源을 啓發하는 資本을 總히 歐洲各國에 向하야 藉求하다가 그後英國의 苛斂을 抵抗하야 七年의 苦戰으로 獨立을 搆하던 大業을 始告하엿스나 獨立運動하던 그 當時에도 中歐各國의 援助가 寶多한 中에 더욱이 佛國과 如함은 特別히 著大한 것이며 南北戰爭時에도 米國의 國勢는 危險에 迫近하엿거늘 中歐各國은 또다시 盡力하야 協助함으로 米國의 工商各業이 그의 資財를 依賴하야 利源을 啓發함으로 今日의 富强을 致한 것이다 그러면 水를 飮하면 그 本源을 溯想할 것이다하는 格談과 가치 今日의 米國은 往時에 中歐各國이 自國을 協助하던 것을 回想하야 今日中歐各國을 協助하면 國際的 感情도 圓滿에 日臻하고 工商各業도 容易히 振興할터인데 그러치 못하며 歐洲各國을 强迫하야 債款을 償還하라하면 或은 此로 因하야 怨謗이 生할 뿐더러 或은 各國이 聯合하야 米國을 反抗한다 하면 上述함과 如한 經濟의 損失을 受할뿐 아니라 國際的 競爭의 危險을 受함이 或無할는지도 또한 知치 못할 것이니 何等의 利益이 有한 것이냐 하는도다

四、歐洲各國에서 米國의 債務는 期限 前한 戰費의 一部라하는것 米國이 이미 歐戰에 加入하야 協約側의 一國이 되여 歐洲各國으로 더부러 戰時에 責任을 同負한 以上에는 租稅軍器其他의 戰時에 需用한 債款은 總히 米國이 耗費한 것으로 看做하고 協約國을 强迫하야 償還하라 要求할 것이 안이다 或은 歐洲各國에 오다 戰時의 賠償이 잇나니 米國이 債權을 回收함은 歐洲各國에 賠償을 回收함과 一樣이라 하지만 그러타할진된 米國은 何故로 『베르사유』會議에서 獨逸의 賠償을 要求함이 比較的 名正言順한 것이어늘 提言치 안이하엿든가함이로다

新社會의 建設 (三六)

廉永源

其後中世紀手工業時代의 雇傭、被傭은 그러도오히려 勞働者의 自由意志가 尊重되게 되엿스나 그러나 雇主인 親方은 使用者인 徒弟를 監督 指導하는 立場에 잇서 從的關係이고 그러면서 이 時代에도 아즉 賃銀勞働者의 存在하는 餘地는 업섯는 故로 徒弟는 勿論 親方으로부터 一定의 賃銀을 受하엿스나 彼等과 親方과의 間에 契約은 私法的의 性質이 아니고 公法的으로 決定하는 것인 故로 兩者가 共히 시르드의 規定 又는 地方官憲의 規則으로 支配하엿다 親方對徒弟間의 情誼的 關係가 極히 密接하고 其間에 何等의 社會的 隔阻가 업시 勞働者는 年月의 經過와 共히 雇主의 境遇에 昇進하는 希望과 權利를 充分히 所有하야 잇섯다 斯와 如히 中世封建時代의 賃銀制度는 今日의 雇主被傭者間에 見하는 바와 如히 苛酷으로서 非人間的의 關係를 生치 못하엿다 그런데 產業革命의 結果로 大規模의 產業組織이 樹立케 되여 從來의 雇傭關係는 茲에 一新케 하야 對徒弟制度는 일드의 衰滅과 共히 勞働者는 自由意志에 基한 勞働契約으로서 賃銀을 爲하야 自己의 勞働을 賣하는 事가 되고 그리고 賃銀은 資本家間의 自由契約에 依하야 決定되는 事가 되엿다 此에 及하야 從來公法的 關係에 立하든 雇主와 勞働者는 勞働契約이 締結되는 時에 至하야 純然한 私法的 關係가 되엿다 爾來勞働契約은 賣買契約과 同一히 勞働은 貨物과 同一히 賣買되며 其의 價値를 定한 一種의 商品으로 化하엿다 茲에 現時의 賃銀制度는 確然히 成立됨에 及하엿다

三、賃銀制度의 特徵

斯와 如히 近代에 資本主義의 發達과 共히 賃銀制度는 確立되엿스나 이는 雇主에 取하야는 極히 便宜하고 又는 利益된 制度이나 勞働者에 取하야는 極히 不便하고 又는 不利되는 것은 否定할 수 업는 事實이다 即資本家는 其의 欲求하는 時에 勞働을 買하고 이에 對하야 賃銀인 反對給付를 支拂하나 其의 不用될 때는 何時가 되든지 이를 解雇하고 그리나 解雇後에 勞働者의 利害休戚에는 全혀 無關係이고 何等의 責任을 가지지 안엇다

資本主義로부터 共產黨主義에 이르기까지 (一)

李鍾模 寄

『社會問題硏究』中에서 拔取

一、資本主義로부터 共產主義의 過渡期

맑스의 이르는 바 共產主義에는 二期의 區別이 잇다 그 第一期는 半成期라 고言할수 잇는 것이요 第二期는 完成期라고 言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고 이 두 時期前에 또 資本主義社會로부터 共產主義社會의 過渡期가 잇다 이것을 所謂過渡期에 對하야는 다음과 갓치 말하엿다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와의 사이에는 甲과 乙의 革命的 變革時期가 가로노히여 잇다 그에 應하야 또 一 政治的過渡期가 잇서서 그 時期의 國家는 無產者의 革命的 執權(獨裁)에 不外한다』

이 時期는 『資本主義의 社會와 共產主義의 社會와의 間에 가로노혀 잇』는 時期이니 仔細히 말하자면 아직 共產主義의 第一期에도 達치 못한 時期이다 그러서 그것은 經濟方面으로 말하자면 『革命的變革의 時期』이고 政治的 方面으로 말하자면 『無產者의 革命的執權』 이라는 『政治的過渡期』에 屬한다 一八四七年末에 『맑스』와 『엥겔스』의 記述한 『共產宣言』 第二章 劈頭에는

『共產黨의 가장 卑近한 目的은 無產者의 階級形成、有產者支配의 顚覆、無產者로서 政權의 獲取、即 이것이라』

고 하엿다 無產者는 이에 依하야 社會를 資本主義로부터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에 引入할 수 잇는 것이다 勿論 社會는 다 못이 一擧에 依하야 卒然히 共產主義의 第一期에 躍進할 수는 업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無產者革命의 第一步事業이라할 수 잇다 그럼으로 同章의 末端에는 다시 다음과 갓치 말하엿다

『勞働者革命의 第一步는 無產者를 支配階級에 陞進시킬일 民主主義를 戰取할 일이라』

여기에 『無產者를 支配階級에 陞進시킨다』는 것은 有產者의 支配하는 社會를 變하야 無產者의 데모크라시로 한다는 意味이다 이와 갓치 하야 먼저 『無產者의 革命的執權』이 成立하고 그로부터 共產主義社會의 革命的變革』을 遂行하게 되는 것이다

이 過渡期에 關한 『革命的變革』의 眼目은 『共產宣言』에 依하면

『無產者는 그 政治支配를 利用하야 次例次例로 모든 資本을 有產者로부터 剝取하고 모든 生產機關을 國家의 即支配階級으로서 組織된 無產者의 손에 集中하야 그리되서 生產力의 總量을 될수잇는 대로 속히 增加할 것이라』

고 하는 點에 잇다 그러면 이런 事業을 엇더한 方法으로써 行할 것인가에 對하야는

『이 事業은 勿論 最初에는 所有權에 對한 並히 有產者의 生產關係에 對한 專利的 侵害에 依하야만 할 수 잇는 것이다 따라서 그 方法은 經濟的으로는 充分치 안코 또한 持續하지 못할 것 가티 뵈이나 그러나 그것은 運動의 進行에 짜라서 스사로 그 限外에 나서나는 것이며 또 全生產方法의 手段으로서 避치 못할 것이라』

고 말햇다 即 이에 依하야 본즉 無產者가 政權을 잡고 所謂 『政治的過渡期』에 드러가서 社會組織의 『革命的變革』을 遂行하고저하야 有產者의 所有權에 對하야 專制的 侵害를 가行하고 싸라서 또 從來의 資本主義的 組織下에 維持되여 잇든 資本家本位의 生產關係에 對하야 專制的 侵害를 가行하여 진다고 한 것이다 모든 生產手段을 國家의 손에 集中하게 함에는 이와 갓치 專制的 侵害를 하는 外에 別로히 有効한 方法이 업다고 한 것이다 그리서 그것은 經濟的으로는 不利益이 되고 持續하지 못할 것 갓치 一時는 뵈일터이나 그러나 全生產方法을 變革하게 함에는 避치 못할 手段일 뿐 만아니라 따라 事件이 進行하여 가는 동안에 一時的 損害는 次第로 업서저 바리고 참내 그 目的한바 『生產力의 總量을 될 수 잇는대로 速히 增加한다』 고 하는 것을 實現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맑스의 이른바 『革命的變革』이 實現되는 것이다

處女의 誓約 (三)

사토우색리안 作
柳金香 譯

나는 이 어한 여러가지 時代의 眞理이 엇케 익어가 속에 파뭇쳐 잇는 글句와 그 글句를 석여 노흔 이 祕密한 隱遁者와 그가 者의 代身으로 쓰는 이오 더된 썩갈나무와의 사이에 異常한 調和를 보앗다

그 自身의 입흠도 그의 年齡도 그 傳道所를 일흐킨 날도 이 썩갈나무 그아 갈디(蔭) 들 기에서 떠러저 잇섯다 이 갈디(蔭)는 인드러지 記念碑가 무엇보다도 더 合한 것을 섯가 한다 나는 엄마음 놀나지 안코는 못 잇섯다 그러나 尊敬할 만한 老人은 말하엿다

『이것은 나보다도 오리 살리다 갈디 수 잇는 얼마 안되는 善行이 보다도 이 갈디인 편이 훨신 貴하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별로 마음 爽快하야 골사이로 드러갓다 나는 그곳에 놀날 만한 作品을 보앗다 그것은 나무 엇으아 갈디(蔭) 들 게에서 쉬더도 아마 돌어서 얼고 잇스리라

『비자니아』에 잇는 天然의 岩橋와 갓흔 岩橋이 잇다 나의 아들아! 人間은 그 中에도 너의 나라의 人間은 自然의 模倣하는 것이 아니다 自然은 모든 것을 주엇다 그러나 人間의 技巧는 大槪 無用한 것이다 …

우리들은 그 岩橋와 갓흔 두 山을 建하고 … 一方에 大河를 두고 … 표면에 ……

이 墓地의 地面은 共同田畓과 갓치 이 傳道地의 家族數만 코ㅁ 制限되여 잇다 … 十字架를 세우고 …

… 그 조고마케 훤 湖水를 부러서 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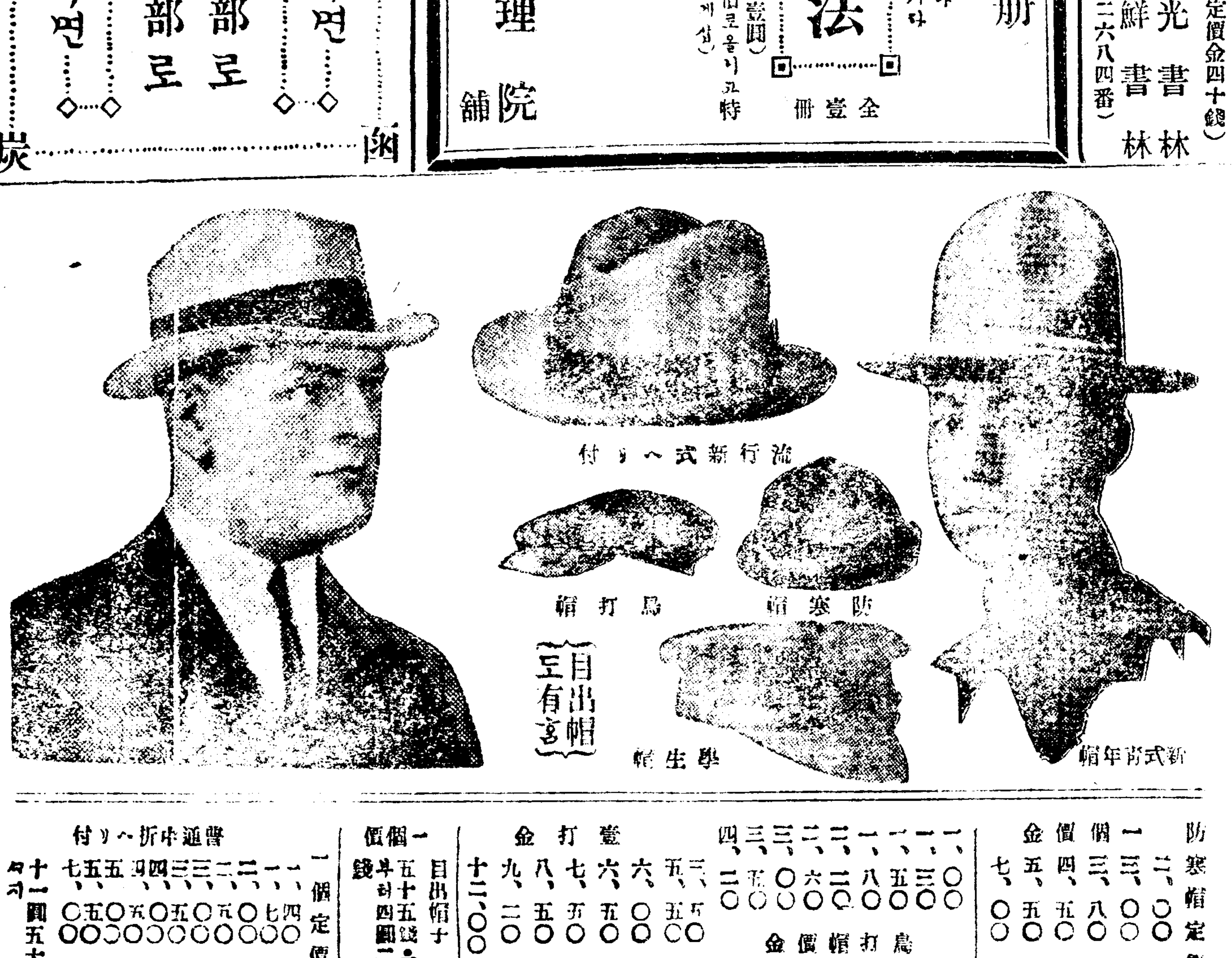
男女音樂部員募集
금반본청년회음악부난내용을확장하고 너부원을더모집하옵니다
입학금면제(상세사난내면하시오)
과목 피아노 올간 바올닌 만도린 관현악은특별부원의한함
시내홍동(通洞)一五七番地
大華敎中央總部內
대화청년회음악부

西瑞製新到着
地方注文代金引換
SWISS
十八金片치마票寶石十個入 十六形 特價 二十八圓也
十八金腕卷寶石十個入 十二形 特價 二十八圓
銀片側치마票寶石十個入 十六形 特價 十二圓
銀腕卷寶石十個入 十二形 特價 十二圓
닛게루片치마票寶石十五個入 十六形 特價 十一圓
닛게루腕卷學生用 十二形 特價 奇卅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八番地
大有堂時計舖 主 徐潤植
振替口座京城二四五八番

最新流行唱歌集 附歌詞
本書는現行된唱歌와新流行하는歌曲은勿論이어니와 舊歌詞別曲其他의鄕雜歌等을無漏編纂하얏스니 唱歌及歌曲界에 覇寶일것이외다 其目次는左와如히 列錄하오니 江湖僉彦은 購讀하시옵
▲靑年警戒歌、蕩子自嘆歌、靑年花柳歌、長恨夢歌、師의恩、蹴球曲、覆世歌、가주ㅣ사離別曲、金色夜叉歌、美人의마음、美人自嘆歌、姿態、修養歌、苦學歌、勸學歌、故國生覺、戀人思慕歌、停車場餞別歌、汽車行進曲、望鄕自嘆歌、秋菊의恨、世界地理歌、散步歌、平壤遊覽歌、花容圖、戀愛歌、靑年勸誘歌、靑春薄命歌、新調사랑가、惜春歌、傾國의恨、別調靑春歌、隴東八景歌、餞別通情歌、月下의作別、斷腸歌、新調春香離別歌、薔薇花歌、春夢歌、浮壁樓歌、戀愛曲、失戀自嘆歌、月下의懷抱、山月의白嘆歌、彩鳳의恨、恨嘆의末路
▲首陽山歌、襄陽歌、竹枝詞、處士歌、黃鷄詞、漁夫詞、白鷗詞、古想思別曲、老處女歌、香山錄、寡婦歌、鳳凰曲、花柳詞、惜春詞、閨秀想思曲、關山戎馬、秋風感別曲、平壤愁心歌、短歌瀟湘八景、遊山歌別調、제비가
編輯者 金翼洙 (製冊美本) (定價金四十錢)
發行所 京城府淸雲洞百番地 金光書林
分賣所 京城府慶雲洞九一番地 朝鮮書林 (振替口座京城一二六八四番)

우리同胞兄弟에게勸할冊
넘으시오 懇切히 願합니다
○今般宣傳키爲하야 冊價도 廉價로올니겟습니다
○眞價値잇슴는 읽으신後에 참제다르실것이올시다
心靈哲理 心靈治療法 全壹冊
特價送料並 (六十錢) (定價壹圓)
但一千名限하고 本月以內에 注文하시는분에게 特價로올니고 特典을 드리겟삽 (特價六十錢特典은 無料券이 잇게 삽)
病患으로 苦痛하십니가、읽으시요
不健康하십니가、읽으시요
靈에神秘를 아시랴닛가、읽으시요
心靈力에 强力을 아시랴닛가、읽으시요
心靈療法에 眞理를 아시랴닛가、읽으시요
發行兼發賣 京城鳳翼洞一四八 心靈哲理院
分賣所 各書舖

紙函을使用하시랴면 紙函部로
洋靴、粉藥、賣藥、其他美術 (자사자)
京城西大門町一ノ四九
廣昌商會 禹昌命
石炭、粉炭、煉炭、木炭等 燃料를使用하시랴면 石炭部로
長電話光化門六四○番
紙 函 石 炭



歐米帽子直輸入都散賣商

防寒帽定價 一個價金	鳥打帽價金	學生帽子 壹打金	目出帽子 一個價	普通中折ヘリ付 一個定價
二、○○	一、○○	五、五○	五十五錢부터 四圓二十錢	一、四○
三、○○	一、三○	六、○○		一、七○
三、八○	一、五○	六、五○		二、○○
四、五○	一、八○	七、五○		二、五○
五、五○	二、二○	八、五○		三、○○
七、○○	二、六○	九、二○		三、五○
	三、○○	十二、○○		四、○○
	三、五○			四、五○
	四、二○			五、○○
				五、五○
				七、○○
				十一圓五十錢々지

京城鍾路二丁目三十六番地 パゴダ公園前
林帽商店 主 林銘益

寫字員募集
男女自宅出來收益確實遠近不問地方副業好適申込次第社則進呈
大阪市南區南河堀町 三三九五(電車通り) 尙文社

京 登錄商標
大陸고무 我고무鮮靴의元祖
京城(龍山)元町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振替京城壹壹二八 電話龍山三四番
京城鍾路通(裁判所前) 同會社總販賣部 社長 李夏榮
振替京城七二三三番 電話光化門長七六五

袖珍 最新書式大全
美裝全一冊◉定價一圓回臨時特價八十錢◉送料十一錢
京城府志堅洞六○ 電話光化門一七七 振替京城八二五五
發行兼總發賣元 朝鮮圖書株式會社

謹告
…京鄕各地出版圖書와日本各地發行書籍을網羅取扱하오니 勿拘多少하시고注文하야주시옵
…前普書舘을買受併營하오니 普書舘을 사랑하시든 僉位는 倍前愛護하야주시옵
…地方에는代金引換의便利를利用하시옵
圖書目錄을請求하시면無料仰呈

書籍業 文房具
平文舘
代 金 品 壽
京城安國洞一五○ 振替京城一九○一○

◎現代社會敎育及學校參考圖書를發刊흠니다
◎新舊書籍各種을大廉價販賣흠니다
◎各學校敎科書及參考書를無漏供達흠니다

中國政局

黃敎育總長就任
高內閣樹立計劃

(北京二十一日發電) 其間就任치아니하든敎育總長黃郛氏는二十一日就任한바孫寶琦整理案의通過를國會에促하고一方으로高內閣의樹立을圖한다더라

顧總長對日抗議
中國人被害事件

(北京二十二日發電) 外交總長顧維鈞氏는二十一日中國人誤殺事件에對하야左의要求를日本芳澤公使에게提出하얏다더라
一、日本政府는速히加害者를嚴罰에處할事
一、被害學生의家族에對하야日本政府는損害賠償과救恤金을給與할事

王正廷日本特派申請
中國人殺害事件調査

(北京二十一日發電) 中國人殺害事件을調査하기爲하야王正廷氏를日本에特派하도록二十一日國務院으로부터大總統에申請한바不日間命令으로發表한다더라

聯合軍形勢有利
孫文氏談話

(廣東二十一日發電) 二十一日朝大本營에서大元帥孫文氏의談話가如左하더라
戰局은益々聯合軍에有利함으로아마三週間以內에는問題가解決할줄로信하며聯合軍이不利하다하야香港으로逃避한某司令官도今에廣東으로歸하야旣히戰場에出陣하얏노라云々

挿橋無線電買收
米國資金借入

(北京二十一日發電) 外交總長顧維鈞氏는米國公使『슈만』氏와協議하고米國으로부터資金을借入하야日本三井會社의挿橋無線電을買收할決心인으로中國에잇는日本의無電獨占權은危殆한境遇에陷하얏다더라

津浦鐵道沿線警備訓電

(北京二十一日發電) 津浦鐵道沿線에서最近電信의不通과其他故障이續發함으로交通部는二十一日直隷、山東、江蘇、安徽의四省長에게沿線의警備를嚴重히取締하도록訓電하얏다더라

吳氏、巡閱使就任
洛陽에서保定으로移駐

(北京電) 新任直魯豫巡閱使(直隷、山東、河南巡閱使)吳佩孚氏는一次辭退의電報를送하얏더니慰留되야二十二日洛陽에서新任하기로決定한바吳氏는四川、湖南의平定함을待하야保定으로移駐할豫定이라더라

佛銀行、鹽稅剩餘金交附

(北京電) 佛國의滙理銀行은差押中인鹽稅剩餘百二十萬元을二十日中國政府에交付하얏다더라

土匪、米宣敎師拉去

(上海二十二日電) 米國宣敎師『슈만레트』氏는貴州省을旅行中이더니土匪의襲擊으로因하야人質로拉致된結果其行方이不明이라더라

新聞紙取締令發布
日本總領事警告

(奉天電報) 張作霖氏는新聞取締令을發布하야違犯者는本國과外國의新聞임을不問하고發行을禁止하겟다고布告한故로日本新聞側의攻擊을受하며二十二日日本總領事館으로부터警告하야曰今春中國側이日本盛京時報社에對하야發賣를禁止함과如한事를再行하면日中國交를阻害하게되리라云々

歐米情報

對獨通牒案審議
聯合國協調乎

(倫敦二十一日發電) 巴里駐箚英國大使로부터送附한對獨聯合國協同通牒案의審議를終了한後此를巴里駐箚英國大使에게送附하얏는데前獨逸皇太子의歸國事件에對하야는佛國의意見에同意함으로觀測하고又該通牒案은中聯合國의獨逸軍備管理再開에關한字句에多少修正하기로提議하얏다한즉完全한聯合國의協調도目睫間에臨한줄로觀測한다더라

大使會議意見一致
獨太子歸國事件과軍事管理問題

(巴里二十一日發電) 大使會議는前獨逸皇太子歸國事件과軍事管理權에關하야意見이一致한結果二十一日夜에該般事項이決定된獨逸에對하야此를通牒할줄로推想한다더라

對獨軍事管理再開
聯合國大使會議協定

(巴里電) 二十日聯合國大使會議에서假協定이成立한바此協定의規定은左와如하다더라
一、聯合國은前獨逸皇太子의歸國을要求치아니하나獨逸政府는前皇太子의謹愼을保證할事
一、獨逸에서軍事的管理를再開할期日을指示하고此管理에對하야는『모레ー』將軍이獨逸側과協議할事
一、管理委員은獨逸政府와聯合國將校에對하야安全을保障할事
一、獨逸政府는管理委員의調査할場所와其範圍를通告할事
一、萬一獨逸이反抗的態度에出한境遇에는聯合國은更히相當한手段을講究할事

獨逸首相辭職乎

(伯林二十一日發電) 獨逸首相『쓰토레쓰만』氏는不遠間辭職할줄로觀測한다더라

伯林市食糧暴動
麵麭及洋服店을掠奪

(伯林二十一日發電) 馬克이更히慘落한結果伯林全市에는二十日夜以來食糧暴動이起하야多數한麵麭商과洋服商은掠奪을當하얏다더라

獨議會、共產黨惹擾
政府가議場內에警官排置한所以

(伯林二十日發電) 獨逸議會에서共產黨員은政府가議場內에警官을排置하얏다하야大紛擾를惹起한바政府側은首相『쓰토레쓰만』氏暗殺에對하야警戒된所以이라고宣明하얏스나議會는畢竟休會가되고木曜日再開하게되얏다더라

獨逸前首相受賂罪被捉

(伯林二十二日發電) 『쓰레스세느』로부터來報에依하면前獨逸首相『쓰아그네르』氏는收賄의嫌疑로써捕縛되얏다더라

物資供給協議計劃

(伯林二十一日發電) 信據할만한報道에依하면獨逸首相『쓰토레쓰만』氏는和蘭國境에서英米의物資供給團을代表하는和蘭의銀行家와會見하고食料類를和蘭으로부터獨逸에積載하야輸送할件을協議하라고計劃한다더라

米國新移民法案
大統領도承認?

(華盛頓二十一日電) 米國에對하야移民定數를更히減少할新移民法案이來議會에提出될貌樣인데此에對하야『쿨리지』大統領도此를承認할줄로觀測한다더라

米國航空隊大擴張
十年間에五億圓支出

(華盛頓電) 米國陸軍參謀本部는今回十年計畫으로陸海軍聯合航空隊의組織을提案하얏는데此報告中米國이今後서로히航空隊를組織하고航空機製造業에旺盛치아니하면米國의航空事業을實際에輕微不振狀態에陷하리라述하고尙且右聯合航空隊를組織함에는十年間에二億五千萬弗을支出할模樣이라더라

英自由黨政綱發表
總選擧에對하야

(倫敦電) 英國自由黨은『아스키스』、『로이드조지』兩氏의署名으로써宣傳書를發表한바其中自由黨의政策은如左하다더라
一、聯合國戰時債務를考慮하야賠償問題를迅速히解決할事
一、米國의提携와露國의完全한國交回復을熱望함
一、資本課稅는國家를破滅케하는것이라하야反對할事
一、英本國은勿論英帝國內의運輸植林、事業을改良開發케하고又低廉한電力을供給할事
一、英帝國內特히直轄植民地의資源을開發할事
一、自治領과豫度의鐵道를建設할事
一、海外移住의便宜를圖할事
一、英帝國內各地의交通機關을低廉히할事

外國銀行閉鎖命令
勞農政府命令

(敦賀電) 勞農政府에서는新經濟政策으로써外國貨幣를驅逐하고十二月一日을期하야極東의通貨統一을決行하게되얏슴으로日本政府는朝鮮銀行、上海香港銀行、正金銀行各支店에對하야組織의變更을命한바今에更히正式으로十一月을爲限하야閉鎖를命하얏는데此로는通貨統一이困難하다고觀測한다더라

日商、森林伐採權獲得

(海蔘威二十一日電) 海蔘威鈴木商店은今回沿海縣의建築材木伐採額五十萬石과烏蘇里沿線에도同樣으로六十萬石의二週年間伐採權을獲得하얏스며尙且同契約은二週年을延長함을得한다더라

臨時內閣會議
復興諸問案及其他

(東京電報) 二十二日閣議는午前十時부터首相官邸에開하고後藤內相으로부터二十一日東京復興評議員總會의經過를報告한바此에基因하야二十四日開會할東京復興審議會에諮問할案件을協議決定하고又田農相으로부터火災保險問題에關하야調査研究한結果를報告하고協議한後大藏政府의態度를決定하얏다더라

復興豫算
七億三百萬圓으로決定

(東京電報) 東京復興豫算은復興院과大藏省에서折衝한結果東京橫濱市를合하야七億三百餘萬圓으로決定하야十二年度로부터七個年繼續事業으로하고十二年度는七千數十萬圓、十三年度는一億萬圓인바二十二日閣議에報告한後二十四日審議會에諮詢한다더라

普選案提出
明年二月初旬以內

(東京電報) 二十一日閣議의普選案審議는頗히議論된結果意見이一致된者도有하얏스나全部決定치못하고來二十四日開會할最後法制審議會總會의決議를經하야答申案의提出이잇슨後에更히審議하고政府에서普選案要綱을決定하기로하얏는데法制局에서法案을作製하야法制審議會에協議하얏스며尙且樞密院에諮詢手續을取한後遲하야도明年二月初旬以內에는議會에提出하게되리라더라

東京金融狀況
資金需要가尠少

(東京電報) 震災後資金需要가激增하야金融은逼迫하리라豫想하는傾向도잇더니最近에는多大한遊金이生한바其原因에對하야聞한바에依하면如左하다더라
一、震災後各銀行은盡力하야地方支店의資金을本店에集中한事
二、九月中支拂、國債券五千萬圓을現金으로償還한事
三、其他會社々債는될수잇는대로現金支拂의形式을取한事
四、市中의資金需要者에게適當한擔保物件이無하고復興事業이速히進行키不能하야商品의集散이尠少한事

全國在米
略六百二十萬石

(東京電) 農商務省發表를據한즉十一月現在全國在米高는二十日에調査한것이五百九十萬石에達함으로其總量은六百二、三十萬石에達할模樣이라더라

政府買米額
四十萬石

(東京電) 在米高가豐富함과同時에二回收穫豫想의收穫減少로因하야來年度米의需要를調節할必要로써農商務省食糧局은十一月中에買入豫定의二十萬石과十月의買入不足二十萬石計四十萬石內外를買入하기로決定하고追後期日을發表할터이라더라

大阪在米增加

(大阪電報) 端境期로因하야漸次減少함은勿論이요大阪在米는二十日現在十九萬五百餘石인바前旬에比하야九百八十餘石이增加하고特히朝鮮米는玄白米를合하야一萬二千百餘石이나前旬에比하야千百三十餘石이增加하얏다더라

政府火保案
閣議에서決定

(東京電) 二十二日閣議에서日本政府가決定한火災保險問題에對한大要가左와如하다더라
一、各會社가被保險者에게契約金의一割支拂에要하는資金은政府에서此를融通하나此를三者인法人에게貸與할事
一、現在와거各社資產은實質的으로價額의形式을採用할事
一、資金의融通은政府對各社別로하나此償還方法은共同辦理로하며將來償還에對한保證으로할必要가無함
一、利率은二分으로함
一、償還年度는共同辦償의便法에依하며延期를要치아니할줄로思惟함
一、合社營業廢止의時가아니면組合을脫出함을不得함
一、此組合은協會加入以外의會社도包轄할事
一、支拂金은契約額에依치아니하고一齊히一割인事

合同問題
具體化

(東京電報) 憲政會의非政友合同問題는新政黨樹立熱로昨今新高頂에達하얏는바[illegible]加藤總裁直系의一、二幹部는아즉形勢를觀望하는狀態이나其大勢는依然히合同에向하야[illegible]革新俱樂部와犬養氏의去就에對하야[illegible]庚申派의連絡을促進하야[illegible]合同問題에關하야[illegible]하다더라

朝銀整理
本支店檢査開始

(東京電) 朝鮮銀行의整理問題는同行總會席上에서美濃部總裁가整理를言明하얏는데朝鮮銀行은大藏省과朝鮮總督의二重監督을受하는貌樣인故로朝鮮總督의二重監督이震災後六年後에는完全히整理를斷行할時에는何等障碍가生하고又大藏省에서도朝鮮總督府를不顧하고直接으로干涉하기도不能하야傍觀的態度를取할境遇도有하고何如間其整理가豫期한바와如히進步치못할際에意外震災가發生하야更一層整理의進步가妨害되얏스며又震災後各地의財界가陷하야金融關係도全히至한故로太藏省에서는朝銀을現在狀態로放任한즉此際整理의進步를爲하야最近에本店及各支店의檢査를開始한貌樣인바此로同行整理에對한根本的方針을確立하게될터이오或은低資를融通함에至하리라더라

憲政會態度
愼重考慮後決定

(東京電) 憲政會의若槻、濱口、安達三氏가二十二日午前十一時에加藤總裁를訪問하고合同問題에對하야協議하얏는데大勢順應에在하니庚申派의正式提議가有하야도黨의各機關에서愼重히考慮한後에態度를決하기로한다더라

憲政態度確定
合同問題

(東京電報) 憲政會內에서는合同에對하야贊否兩論이잇슴으로萬若巨頭가一致하야合同에贊成키不能하면合同論者一派는此際脫黨하야革新俱樂部와提携하리라고觀測하는데憲政某總務는此에對하야曰此問題는事의成否에不拘하고巨頭가一致의態度를取할지오又旣히三回幹部會를開하고確實히決議한故로決코如斯한事는업다고斷言하얏다더라

庚派活動
新政黨樹立計劃

(東京電報) 庚申俱樂部의普選派山邑、南、森下諸氏는非政友合同을促進하기爲하야一兩日中憲革兩派에對하야非公式으로新政黨樹立을勸告하기로하얏는데新黨樹立이라稱한以上에는主義政策을闡明하야廣히同志를糾合하라하는것이더라

臺灣米作豫想
前年同期보다減收

(臺灣電) 臺灣本年度第二期米況은中南部地方一帶의旱魃과吹風의被害가잇슴으로作況이不良에陷한結果二百四十二萬九千九百二十六石의收穫豫想이니前年度同期에比하야二十八萬十八石이減收하얏다더라

臺灣砂糖減收

(臺北電報) 臺灣의砂糖產額은最初에頗히增收할을豫想하더니南部地方旱魃로因하야最近減收하야다하는總督府調査第二回의成績은一回에比하야二十四萬五千六百八十八擔의減收이니前期에比하야四十一萬八千五百十四擔이增收하얏더라

六大都市消防
設備擴張

(東京電) 內務省警保局에서는今日本震災에鑑하야六大都市의消防設備를改善하고消防手、消防機關士約八十名을增하더라

政黨樹立協議

(東京電) 革新俱樂部에서는二十二日本部에서幹部委員會를開하고新政黨樹立事로協議하게되얏더라

新政黨과庚申派

(東京電) 庚申俱樂部代議士中에新政黨樹立에參加한者八名이오目下新政黨樹立에絕對反對者는宮田、井上二氏이오其餘五名은好意的中立이더라

政友調査會
臨時議會案件調査

(東京電) 政友會에서는二十二日午後一時半부터假本部에서政務調査會를開하고臨時議會의案件에對하야調査하게되고爲先其中心問題로左의件에對하야意見을交換한後結局十五名의特別委員을推擧한後審議하게되고二時半에散會하얏더라
一、事後承諾案(緊急勅令과緊急支出에依한)
二、財政經綸에關한件(各省의復舊 東京의復舊 火災保險問題 經濟復興問題)

合同正式提議
憲政及革新俱樂部에對하야

(東京電) 非政友新政黨樹立問題에對하야庚申俱樂部의山邑、森下、南三氏는昨今憲革兩派의合同機運이漸次進展된故로二十二日午後四時憲政會及革新俱樂部兩本部를訪問하고正式으로合同을提議할터이더라

合同과各派態度

(東京電) 庚申俱樂部의森下、山邑、南三氏가革新俱樂部의幹部와會見하고更始一新의秋인故로此際新政綱政策의一致한者가眞生命인新政黨을組織함이如何오하고又一方으로憲政會에서도黨內相議後回答하게되얏다고陳述하고合同談을[illegible]

領事會議大要發表
有吉政務總監談

去卄日부터三日間中樞院內에서開催한朝鮮關係在滿領事會議가朝鮮內에서開會함은今回가嚆矢일뿐안이니라其協議의內容은絕對秘密裡에附置함으로一般의視線은此에集注하야仍히多樣의臆測을抱하얏스며或은協議의內容을速히開示하야一般의異感을除去함이可하다는要求도有하얏슴은有吉政務總監은昨二十三日朝에新聞記者一同을招請하고此에對하야語하되今般에開催한領事會議의內容에對하야는種々來聞한者가有한模樣이나此는領域內에만關係될이안인故로少毫라도誤傳되는點이有한時에는徒히神經이過敏한中國官憲에게刺戟을與하야오처럼邦人의保護를目的한此會合의結果가有効함은姑捨하고反히國家的見地로부터損害가頗大할가恐하야未果함이더니其後諸官의同意가안이엿스나此를發表치못할處地에在한바會議가終了된後에其槪要를發表하기로意思가一致하얏스며且今番京城에서開會하게된것은滿洲와國境이相接하야交通이頻繁하고特히朝鮮人이多數在住하는關係로平素事務의連絡을取할必要가有함에不拘하고從來關係官憲의會合이無한狀態인故로一堂에會合하야協議를行하고懇親을結하야將來朝鮮總督府가關係하는範圍의事務進捗에資코자하는目的이라今後에도每年一次此種의會合을開함을極히必要할줄로雙方이共히思考하나此는希望으로本是外務省의同意를要할바이며今番에協議한것은朝鮮人의保護撫育과國境地方에在한朝鮮人의取締에關한事項이나其大要가如左하다云云
一、在住朝鮮人의生活安定에關한件
在住朝鮮人은下級農民이大部分을占하고累年或은旱魃을遭하며又는水害를被하고剩히馬賊等의被害로生活의安固를期함을不得하는故로當局은此의救濟에年々苦心하는狀況인즉將來此等障碍의輕減한方法을攻究할事
二、在住朝鮮人小農에對한金融에關한件
在住朝鮮人農民은恒常農耕資金이缺乏하야甚한者에至하야는食糧資金의融通을受하기도困難한狀態인즉此等에對하야生活資金農耕資金融通의途를攻究할事
三、商租의實施에關한件
在住民을土着安定케함에는商租等의途가有함에不拘하고此實施에必要한手續이未了하야今尙一定한土地에安定하는者가少하고年々南北으로轉々移住하는者가多하야生活의不安이悲慘한狀態인즉爲先彼等의生活安定의基礎인土地의利用에關하야相當한方法을攻究할事
四、在住朝鮮人敎育에關한件
滿洲地方에는朝鮮人敎育機關이少하야從來多數는無敎育과等한狀態에在하고오즉少數의地點에普通敎育機關을設하얏슴에不過한지라將來는少하야도沿線主要地에는相當히敎育을施할方法을攻究할事
五、在住朝鮮人의取締에關한件
滿洲에는少數不逞의徒가猥、良民을苦케하고特히國境附近에는屢々朝鮮內에侵入하야兇暴를逞하는者가有한지라從來此取締에關하야中國官憲과屢々交涉하얏스나今尙此等에對한取締가徹底치못한憾이有하니將來此의取締를嚴하게하야此防止의方策을攻究할事
六、在滿朝鮮人의赤化取締에關한件
露領의赤化를쌀어漸次其宣傳의魔手는北滿地方의朝鮮人에及하니其影響을受하는傾向이有하니適當한對策을講하야此防止에努力할事
七、戶籍居書類의處理에關한件
從來在住朝鮮人의戶籍關係屆出類의處理가區々하야本籍地에서戶籍을整理함에困難한境遇가不少한지라將來書式을協定하야此處理方針의一定함을攻究할事

人事消息

▲金澤大氏(本社蔚山支局長) 再昨日入京滯在中

民聲

▲距今臺週日前인가보다西大門을나서々城塝을넘어서고西北으로돌다가어느會館內部主事宅에는還甲宴이열리럿다▲그宴席에는蕭々한白髮에疎岩巾에隱映하는老人數十名이儼然한風神으로도러안젓는데判任은勿論이오勅奏任의履歷은모다燦々하다▲그러한老人들은還甲主人에게姻戚知舊의情分으로賀意를表하다고오기도하엿지만은그中에一種特別한關係로會集하엿나니어는『朝鮮革新黨』이라하는團體의樹立이다▲그黨의主義綱領을一見하면朝鮮의自治란것을統營紗笠가치쓰고民選議員을中樞院에參加할것과國有地貸付、人蔘販賣의請願으로周衣져고리바지를입엇다▲局長、課長、觀察、郡守、主事의宦夢에十數年을寂寞히지내든民選參議나하여볼가好官不如多得錢이니三井會社가獨占하는人蔘販賣의半部權利나어든金錢맛에나맛좀볼가▲金剛山도食後景이니國有地의貸付나바라는產業家치일어나지만은自身의頭腦를革新치못한老朽人物들이무엇을革新할가▲試問하노니公等의手로能히朝鮮의自治를實施할것이며自治로能히朝鮮民衆을救援할것이냐가七十老翁의所求라더니그所求는이뿐인가한다

米豆餘話

▲二十八圓臺를標目하든硬派의和唱物도演出하고서라서時勢도百餘丁이나反落하는同時에사라마다二三百丁暴落은免치못하리라고預測하엿든바인데反히五大十丁을再燃하엿다▲大天井을作하기爲하야又復上伸할인지市中人氣는殆히迷酷中에在하야自重自愼하는模樣이야▲某消息通을據하면阪地市場을買方有力筋인岡半一派의出動으로更히昂騰할인듯하다고云々▲此果然인지는아즉疑問이나所謂有力派모는擧皆買緊하야頹勢를容許치안이한다고▲此邊二十八圓臺는實로難關의處인데天井을짓지못할줄로推測하는派도有하다▲或說을據하면요사이天候는極히不良하야農村의收穫을遲延케하며從하야入津의數量도殆히稀薄하야目下現像이야▲그러함으로日本으로부터先約의注文만到着할뿐이요아즉該注文에酬應할만한產地의固着에無함으로預約하엿든商人들이미우困難하리라고▲그러면軟派는渡木準備가容易치못하게슴을推知할일이며압흐로時勢도一層高調를示하지안이할가하는疑訝派도有한模樣이야(仁川餘話子)

商況

仁川期米 十一月二十二日

後場

前場은大阪止價二十五圓〇一錢인內燃의報를接하고二十八圓三十五錢에頑强히出함을止하엿슨바今後場에入하야阪電延着으로前止價를標準하고立會하니
▲第一節 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二十八圓三十五錢인前止價와同樣으로初付하다
▲第二節 阪地初付三十四錢九十八錢인三丁低價로二節八十一錢인小落을據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三十五錢에始하야二十三錢까지反落한後에止하다
▲第三節 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二十錢에始한바此際에阪地二節八十八錢인反高를接하고四十六錢까지俄然反騰하엿다가三十九錢에止하다
▲第四節 當中兩限은亦不成이며先限은三十九錢에始하야四錢々지小弛한後三十五錢에止하다
▲第五節 阪地四節七十九錢인又復反落을受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며先限은二十九錢에始하야二錢々지崩落하엿다가七錢으로返戾하야止하다
▲第六節 阪地五節七十二錢으로止價八十三錢인反高를據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三十一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가二十六丁이더라

仁川米豆取引所 仲買人 タ 仲買店

仁川 期米取引參考書 最新編纂 公平하고權威잇는모든强弱의材料를蒐輯하야諸位의判斷을참考하나다 通信 呈 福 仲買店調査部

當選謝禮
今回鎭南浦府協議會員에當選되얏슴은實로有權者諸氏의深厚한同情에서出한바임으로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金熙善

當選謝禮
今回鎭南浦府協議會員에當選되얏슴은實로有權者諸氏의深厚한同情에서出한바임으로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林炳日

當選謝禮
今回鎭南浦府協議會員에當選되얏슴은實로有權者諸氏의深厚한同情에서出한바임으로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張瑞奎

當選謝禮
今回鎭南浦府協議會員에當選되얏슴은實로有權者諸氏의深厚한同情에서出한바임으로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馬載坤

當選謝禮
今回鎭南浦府協議會員에當選되얏슴은實로有權者諸氏의深厚한同情에서出한바임으로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李鍾燮

當選謝禮
今回鎭南浦府協議會員에當選되얏슴은實로有權者諸氏의深厚한同情에서出한바임으로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金鉢衡

當選謝禮
今回江景面協議會員選擧에際하야各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最高点으로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鄭希源

當選謝禮
今回江景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各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車斗轍

當選謝禮
今回江景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各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朴齊元

當選謝禮
今回江景面協議員選擧에際하야各位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謹以紙上奉謝하나이다
金良玄

을 돗건데 지나간십육일오전열한 발견하고 즉시경찰리구장 스며고소와 … 리경찰서에서는 … 학비를대여주는 … 더라(원주) …

두사하얏스나 실 습을되얏다더라(동경뎐보)

糺彈演說大會의當夜
오륙천명의청중은열광으로흥분
경관은중지명령을하기에눈올못셔

일본각로동조합의 련합주최로 귀호경찰서사건의 규탄대연설회는 지나간 이십일오후여섯시에 대판중앙공회당에서 개최되얏는데 각디방으로부터 모혀드는 조합원들은 뎡각전부터 오륙천명에일으러 회장은 대만원이되얏스며 개회를 재촉하는 박수소리는 넓고넓은 **공회당을** 진동하는동시에 「텬촌」씨의 간단한 개회사가잇슨뒤에「동장」씨를의장으로추천하고 귀호서사건의 진상을 묘사한 「포시진치」씨의보고가 시작되자그곳에 출장한「련만」서장은 중지를명하매 근만명의청중은일제히 관헌의 횡포를질규하다가 진뎡됨을따라서 계속하야 동경「남갈로동조합」대표자이「좌좌목」씨의 보고로써 붓을맛친후 대회로들어가여려가지 결의를하고 여덜시부터 **연셜회가** 시작되야각조합대표자십수명의 열렬한 웅변으로 일반청중의 뜨거운피를 흥분식히엿스며 그연셜의대반은 중지의명령을당하고 나중에는 해산을명령할형세가급하얏스나 청중의 긔세가 별광뎍으로 피를토할것가티 날치으로 만일을념려함인지 해산까지는못하고 대회는 성황으로써폐회한시경에맛을맛치엿다더라

散會後에示威行列
경관과충돌되야이십여명검속

대회를 맛친후에 약오백여명의조합원들은 회긔를선두에 세우고대판시청사북편으로부터 혁명가와 로동가를 부르며 시위행렬을시작하야 방금쟁의중에잇는「송강방적공장」주인의집압으로 살도코자할제음에 경관이백여명과 충돌되야 조합원이십여명이 검속되고그남어지는 각각해여졋다더라

大會前의檢束者
四十餘名中에는
조선로동동맹회간부도

규탄대연설회를 개최하기전 이십일새벽부터 대판경찰서 에서는대활동을 개시하야 대판시내외를대수색하야 경도、신호등각디방으로부터오는 주의자들을각서에 검속하얏는데 그중에는 대판에잇는죠선로동동맹회간부「송상복」「지건홍」「김연표」「김연섭」등 네사람도 복도서에 검속 하얏다가 그잇흔날방송 하얏다는데 그내용은족자세히 알수업스나 귀호서사건의 조선사람에 대한관헌의 나안이할싸념려함이든듯하다더라(대판)

光正團員被捉
혜산진경관에게인도

「대한광정단」원「정렬호」「남홍국」량씨는 지나간구월십구일에 만주장백현 십사도구 독동이라는곳에 출장하얏다가 그곳에잇는 중국순경에게 잡혓는데 그현지사「동영삼」씨는 일본관헌과 련락하야가지고 지난달팔일에 량씨를혜산진에 잇는일본경관에게 인도하얏다더라(상해)

第五回의甘粕公判
甘粕의減刑嘆願書를提出
감박은극히공로가만헛다고
증인소산대좌가진술하얏다

「감박」사건의 데오회공판은 이십이일오후 한시이십분에 개뎡하얏는데 당일에증인으로 소환되얏든병대장「소산개산」대좌는「감박코-트」를닙고 출뎡하야 법무관은 직무상에관한 질문을한뒤에사회주의자의 행동에대한 보고를심문하고 대삼영이가 살해된것을엇지알엇든것을무른뒤에「중귀」

변호사가 질문하기를「감박대위의 공적이 여하하냐」고하매「감박은 원래직무에 충실하고생각이깁고 사물에 주도한판단으로써처리하며항상부하를독려하야공적이현저하다」고 대답하얏스며 기타여러변호사의 헌병대안에서 상관과하관사이에 명령복종의 관계가엇더한것을 물은뒤에 세시이십오분에 휴식하얏다가오십분에 다시열고 소위 불령조선인과사회주의자의행동에관한

보고등에 대하야취됴한바가잇섯고 나종에는「중귀」변호사로부터오만여인의「국민」이서명한감박대위의「감형」하야달나는「탄원서」를제출한뒤에 네시십오분에폐뎡하얏는데 금이십사일 오전구시에검찰관의론고가잇스리라더라 (동경뎐보)

無政府主義者
石環氏公判
금일평양에서개뎡

新崇敬丸沈沒
승객은모다무사하다고

「이키시마」회사소유인「신숭경환」(일백구십삼톤)은 승객삼십이명을 태이고 지난이십일일 오후에「고송항」을 떠나이십이일 오전네시경에「신호」로부터「대판」으로 향하고자하야 신호항동편에도착하얏슬때에 마침 신호항을 떠나나오는「대판상선」의「의주환」이「신호」를향하랴함을 인하야신숭경환과 충돌하야략십오분간에 신숭경환은 침몰하얏는데 승객은모다 …

共產黨의嫌疑
李周穆氏放免
증거불충분함으로

지나간십일월사일창녕군、디주조회석상에서 공산주의 선뎐자의명목을띄운 련산소작회대표 리주목씨는 창녕경찰서를거처서 밀양검사국에호송되얏다함은본보에이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십사일 오전십일시에 밀양재판소 데일호법뎡에서「실히」판사의 담임으로본건의공판이 개뎡되얏는데 긴시간으로피고에대한 문답이잇슨후 검사는 최후로십사일구류의 구형이잇섯스나 증거가충분치 못함으로드되여 무죄로석방되야서 일반이 … 사의 위로중에서 씨는무사히자택으로도라왓다더라(창녕)

中國山西省에大地震
城內城外二十四個村에
가옥은거진다문허지고
사상자가일천오백여명

중국 산서성 가남현에서온통신에의하면 지난십오일오후 세시반에가남현에서 큰디진이잇서서 성내와성외의 이십사개촌에 피해가심히만코 가옥은거진 다문허젓스며 그로인하야 눌녀죽은자와 부상한자가 일천오백여명에 달한다더라 (상해뎐보)

大朝特派員을拘引
해삼위에도착한지잇흘만에
가택수색을당하고검거되여

로령「해삼위」에 도착한「대판조일신문」특파원「중산정웅」씨는 십구일밤에 가택수색을당한후 구인되얏는데 무슨리유인지 모르겟다하며 해삼위에 도착한지 잇흘만에그와가티되얏다 더라(해삼위뎐보)

□程度가個々히相異함으로政治上으로 … 그政府의勢力이各々不同하고 … 거니와目今에歐亞를縱論하야 …

慶大新塾長
林毅陸博士로
평의원회에서결뎡

동경「경응의숙대학」에서는지난이십일오후네시에 그대학 도서관에서평의원회를개최하고당일의의뎨중에「복력일태랑」씨의숙장사임과신숙장선임의건을토의한결과복력씨는사임을허가하기로되고신숙장 … 회원들은 모다 은현재그대학의리사로잇든「림의륙」씨를 만장일치로가결하얏다더라

金麗植君의學業
「스칼라쉽」을어더

미국와싱톤、씨、씨에잇는「아메리칸、유니버스티」파사원에서뮤지학을연문으로연구하는「김려식」군은 그학업연구의 성적이 매우우월함으로그대학에서「스칼라쉽」을어덧다는데 미국에서 외국인학생으로서 이것을어듬은 매우희한한일이라더라(상해)

上海警察廳長의被刺
국민당원을잡어죽인일이잇든바
그의동지가복수하고자총을노아

지난십일일오후여섯시경에상해경찰청장의「서국량」씨는 중국 국민당원에게 저격을당한큰 사건이발생하얏는데 그내용을듯은즉 상해경찰청장은 원래관료파의몸으로 작년에국민당원「한회」씨를 유인하야잡어서 강소성독군에게 보내여참살한일이 잇섯는데「한회」씨의동창동지로 사생을가티하야 국사를하자는 맹서한「리대생」씨는이것을심히

분개하야 매양서청장을암살하고자 하든바 지난십일오후에서씨가상해、영조계、애다아로、엇더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나와자동차에 타고자할때에 돌연히총소리가꽝나면서 씨는차안에 썰어지고 자객은독시다라나는것을 보호하든경관이 쫏차가서 허리를쏘아헛섯는데 자객은힘이 시인치라경관의 머리를향하야 총을노하중상케하고풍우가티 다라나다가 필경은 영조계

경찰에게 잡히엿는데「허호군서」로인도하얏다 하며 자객은일즉 학교의교원으로 상당한학식이 잇는자요삼십문을 바들때에도태연자약히동지를 위하야 원수를갑헛다는 사실을 자백하얏다하며서청장과 그보호순사는 중상이된바생명이 매우위독하다 더라(상해)

凶惡한滿洲監獄
죽는사람이다수

금년일월경에 만주장백현에 잇는중국 감옥에 가티엿던 조선 사람「청공범」( ) 「김원렬」( ) 외에 또한사람을 합하야모다세사람은 원래독립운동자로서 중국순경에게 피착되야 미결수로잇던바중국감옥의 제도가극도에 달하도록괴악하야 죄수들을개나 도야지보다도 더욱악하게대우함으로 그세사람은괴한을견대지못하야마참내그옥중에서 사망하얏고 지금도그감옥에 갓쳐잇는조선사람이 십여인에달하는데 그역시학대를 견대지못하야 굴머죽을디경이라 더라(상해)

貯金日의宣傳
이십육일로부터
대대적으로선뎐

본년외우편저금날 즉금월 이십육일부터 이십팔일까지 삼일간에는처음선뎐을 대대뎍으로하고자 멋칠전부터 준비중이더니 이제는날자가 차차갓가워짐으로 구대뎍실행방법을 준비한다는데 경성우편국에서는 전국원을두대에 난호어가지고 한대는선뎐 한대는권유로하야 이십육일부터는 실디에활동을개시할터이라는데 실행방법은아래와갓다더라

一、광고우편또는기타방법에의지하야 부내각요소에서선뎐삐라를배부할일

二、리원이출장하야 부내에잇는각중요관령 공서 회사 은행상뎜등에대하야는 미리부터 저금권유의원조를의뢰할일

三、선뎐용의「포스터」를맨드러목욕탕 리발소등에부치고 간판도맨드러부칠터이며

、당일은 자동차로 전시가를돌녀선뎐하고중요한처소에는리원을특파하야 선뎐용의 긔를맨드러배부할예뎡」등이라더라

民衆的組織을決議
開城青年團体聯合會에서
현재제도는근본뎍으로파괴하고
민중뎍으로새로조직하자고일치

개성에잇는 청년단톄 오개소에서련합회의를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지나간이십이일 오후일곱시경에 송도면사무소 루상에서대회를개최하고 각청년회무움책임을 토의한결과에 현재에잇는다섯청년회는 근본뎍으로 파괴하고 민중뎍으로다시 조직하기로만장일치로 결뎡되야 실행위원다섯사람을내여 그에게위임하고 이후에조사는 위원에게 맛기기로하고 동아홉시에무사히 폐회하얏다더라(개성뎐화)

長城小作人의不平
새디주일본인이금년소작료를
작년보다이할이나더밧는다고

전라남도 장성군내에잇는 동해긔업회사의 소유토디가 장성군에잇는데 금년에는 장성군북일면에잇는 토디이십여두락을팔고 동군삼서면룡천리에사는 전남동화데의사「김뎐각량」에게 금년소작료 됴뎡과가타소작료수봉을하도록하엿는데 김뎐작량은 간평을할때에작년보다 이할이증가하야 소작인들은 금년농사는 해쪄지어서걸뎐직당의 축복만하여준다하야 심히분개하면서동군동화면은아직도논가튼데를 해결하지안으면 비지안겟다하며매우 강경히 분쟁하는중이라더라(광주)

鄕客詐欺를專門
세명이공모하야가지고
시골사람을속혀먹든자

인천경찰서에서 방금세사람이 취됴를 밧고잇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드른건대 전라남도 무주에본적을두고당시주소미뎡인 철도권과 일번이「어기태」와충남 출생 「김치옥」강원도 출생「뎡원근」의 세사람이데이자들은 공모하여가지고 인천부내각쳐를 도려단이며 항상시골서온어수룩한 사람을 유인하야악한행동을 하는자인데 지난이십일에경인선「축현역」에 나와서 엇던시골사람을 속이여먹고저 차에서나리던손을 고르고잇던중 이행동을수상하게본 축현파출소 순사에게검거취됴된바 이사실이 판명되여방금엄중한 취됴를 밧는중인데다른죄도잇는모양이라더라(인천)

欺人取妾
長城의日本人이
본처가업다고속혀서
첩을삼으랴다가들녀

전라남도、장성군 한목면 월평리「시던학평」이라는일본사람은 지난십월이십오일에 자긔의 「장남」「주」라는 와공모하야 일본복강현복강시、박다며반、열뎡목에 거주하는「아부요네」라는 녀자를 속여서「주」의 아비가 본처가업는데지금어미를 구하는중이어 엇더한가하야 잇는물건과 가옥등을매도하고 전라남도월평리에 와서멋칠이안되야

매우깁게 지내더니한달이다못되야본처가와서불평을이르키고또한「시던학평」은마음이업는바가안이나 일이조흐잇서서 요네를내동수가업서수를 일본으로 도라가서잇스면 명년체초에 평로가서일본에서만족한생활을하자하며차표를사다주고 몸두한집을 주면서무산가서여 보라하얏는데그녀자는이것을일지도못하고그대로

자긔잇든 고향으로도라갓는데그후에 차차로돌니는 말이「시던학평」은 자긔의본처가잇다하야 권귀녀자의동생과 근동에서 사는「호귀삼차」라는사람과 외의두사람이 권귀녀평에와서학평보고를읽은즉「학평」은다름안이라 자긔의아들이 「밥」을하기위하야 다려왓기에 멋칠동안 그대로두엇다가 가겟다고향으로 돈까지붕두에십원을 느허서주어 보내엇는데 이제야 잔말이무슨말이냐하며 욕설을함으로 권귀사인은 바로뎐보를해서 권귀녀자를오라하야 당관중이라더라(장성)

當局의非難
廣告紙의詐欺는
엉말금지할것을
엇재안이금하나

작일오전한시경에 시내 공평동십구번디에서 유식뎡영업을 하는「김영숙」은 술을팔다가 인삼광고지를 일원자리지폐로알고 바든것이 발견되야 현의자로제동이번디에사는 리성옥과 관철동사십삼번디에사는 김태성과 서대문뎡사는「평인선」세사람을 검거하야 종로경찰서에 구류하얏다는데 그들은그때에 칠십전어치의술을 마시고일원을 내인후에삼십전을 거실녀갓든바 그후에다시 삼십전을가지고 술을마시려왓다가 헤모된것이라는바 이러한사건이 금년에도시내각쳐에서 발견된것이 벌서수십여차에달하얏다는데 이광고로 말하면 서소문안에잇는 합자회사인삼뢰조회사의 광고지인바 이러한폐단이나게한것은 회사보다도 이것을 인가한당국의 잘못이라고일반의비난이만타더라

修羅場化한崇義校庭
警官十餘名까지出動警戒
라선싱에게충고차로간학싱들을
서양인이구타하고발로차기서지

평양숭의녀자중학교에서는지나간이십이일 하오네시부터 시작하야일곱시삼십분동안에 긴시간을 두고 동교문뎨의주인공인「라진경」선생의사건으로인하야 일시는 매격투가일어나나 일대수라장을 일우엇다는데 내용을들은즉 학생이십여명의대표자가 최후의말로 충고하기위하야 학교로방문 하엿섯든바 마침동교문뎨를위하야 모힌교사회가잇슴으로

할수업시 약두시간동안을 교사회를마치고헤여저 나아오는 라씨에게 즉시달녀가 전후사실을밝히려한즉 당시에서양인 리사들은 이지안케하얏는데 동시에 학생들은매우분개함을 견디지못하야 여러 라씨를찻고자한즉 그때에라씨는

서양사람 들에게말하기를 「학생의무리가 나를십으라왓스니 나를보호하여주소서」하며 즉시다른방으로뛰여들어가 좀잇슬감추이비아이일을보는서양사람들은밧부며다가학생들에게구타를하여 나중에는 현시 숭실대학교수「모펫」박사의「편하설」이라는 서양인이 동교사한년생도「문병순」라는 녀학생을 구쓰발로

차기서지 하야전국그학생은 즉시 격구러저 체상을모르고잇는것을 학생들이 눈물을흘니며서로구됴하야 치료케하엿다는데 일반선교사들은 뎐화로 평양경찰서에 잇는 서양사람이라고는 로소남녀나아가 경찰관모양으로

항긔들을 청돈식히이는등 을불로보하고 동창동을하게하야 일외학교대문을 수직하며 일변밧게 쐬는 점점험악하여짐으로 결국 평양경찰서에서까지「최형순」경무보와의 십여명의정복순사와 형사들이동교뎡안에 출장하야 나중에는 경관들의최지로 할일업시각각 집으로헤여졋다는데 동교의 운명은엇지나될는지 당시에목격한 유삼백여명은서양인의반도덕한행위와 문데이라씨에 대한비난이자자하더라(평양)

平壤市에殺人強盜
지나간이십이일오전두시경에
일본집에들어가서부처를죽여

지나간이십이일오전두시경에평양부 박구리、백이십오번디에서 삼화상회를경영하는 일본사람「복촌이차랑」이란사람의집에서 자긔처와 어린아히와 잠이곤히들어자든중 돌연히엇더한자가비밀히침입하야물건과금권을탈취하려다가 그만주인이 잠을깨임을알고죽이려

달녀들어 가젓든칼로부수만체상을따낫다는데그후지나든순사가이일을발견하고즉시평양경찰서에말하야강본서장외의주요경관사오인이 현장에출장하야 됴사한즉 방안에는 전부피바다를일우엇스며 문밧게는 네치

가량되는 단도가노혀잇슴을발견하고 즉시범인을 찾기에노력중이더니 동일오후한시에 평양누수뎡 십삼번디「박경식」삼십북세되는자로 판명되엿든바 그본집에상복하야 문을굿게잠그고 어느모퉁이에 숨어잇는것을 발견하고즉시톄포하야 엄중히취됴한결과 즉시자백하얏다더라(평양)

馬山에強盜
건재약국에들어가서
이십육원만가져갓다

지난이십일새벽 첫닭이 울때에마산표뎡에사는「김성규」건재약국에는강도가침입하야귀중한약품을강탈하야 갓다는데 자세히드른건대 김성규가거주하는자긔약방에는돈을안이에임으로벌하나를줄한이웃방에서잠을자는일이 하로잇틀이 안니든지인데 그날도자긔의약방은 비여두고 뎟방에누어

깁흔잠을 들은때에소변이마려옴으로나오난길에자긔약방을바라본즉 엄천눈에뛰이는것이 벽에 큰구멍이낫스며 유리창으로는사람의거림자가 비치엿슴으로 황급히 누구냐고 소리를하얏더니별안간한명의 남자가 뛰여다라남으로 김성규는 추격하든중돌연히그악한은 거름을멈치고

옷속으로 부터날카라운단도를빼여위협함으로형세가밤은깁고인적은고요하야하는수업시도로쫏겨 자긔집으로 도라갓다는데

도난당한 약방안으로드러가서 며강도사한것이이십과 록용의귀중한약으로 시가며락오백여원어치를 가저갓다하며 이급보를들은 소관경찰서의 형사들은극력수색한결과협의자사오인을구인취됴중이며 계속엄중수색중이라더라(마산)

唐津에強盜
돈왕래하는것을
알고서들어온듯

충남 당진군 합덕면 머뎐리 에서사는조희하는지난십오일례산군에서 버감삼백원을 차저와든바그날밤열두시경에강도여덜명이들어와서 주인을구타하고 그돈삼백여원을강탈도주하얏는데범인은수색중이라더라(당진)

洪氏死因은疑問
급작이죽은것이
이상한일이라고

인천부、신뎡、사십팔번디에사는홍영식은 작일오전다섯시에 돌연히사망하얏다는데 그는 이십일전에금권상관계로 경찰서에까지 간일이잇섯든바 그의집에는 아달이업서서 양자를하야잇는중 부자간에금권상관계로 불평이 다소잇든터인고로 혹부스임이나 잇지안이한가하고 인천에서는 의사가출장하야 검시후 엄중히됴사중이라더라(인천)

街路上賣買禁止
무배채나무장사들은
축현압시장으로가라

요사이 인천에는「나무」장사와「무배채」장사들이 각거리에 들어서 …

구제합시다! 집도의복도량식도업는저서관이재동포들을!!

얼기는벌서치워저서 섯듯한방에서도 몸을잘다더야하겟고 솜옷을입고도난로협호로 모이는이셔에 주린배를붓들고 거리에서설고방황하는그들의 참상을생각함이업다하면 인류애가어대잇다하오리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番地(民友會館內)

電話光化門一二五五番

西鮮水災救濟會

後援 朝鮮日報社

西鮮水災救濟同情金

강원도평강군 읍내유지제씨가 서관수재동정금을 모집하야 경성서대문뎡이뎡목칠번디에잇는서선수재구제회에보내엿는데그씨명과금액은아래와갓더라

榮佐七 金五圓▲李寅爵 金鶴[illegible] 濱谷重太郎 李裕巖 金鳳奎 朴鐵太郎 金三圓▲金錫秀 [illegible] 央和 金琴鎭 金完基 姜益[illegible] 成德祚 張順吉 宋昇和 任受[illegible] 妻榮奎 金濟寶 李夏榮 金[illegible] 安徐相一 恒聚奎 慶文模 車[illegible] 黍盛 德和成 裕順興 金二圓▲朴承稷 一圓五十錢▲申羲善 沈宜昇 池元興 金賢秀 李殷弼 安尙洙 李東鎬 金濟鏞 金永奎 崔泰[illegible] 李春煥 金陽渠 李基奉 孫允洙 徐泰英 許之雨 李應圭 金永昌 崔[illegible] 吳行 金正信 李昌煥 金鼎熙 小[illegible] 丹藏 宋雲鶴 李庸秀 趙南[illegible] 李春寶 蔡思默 金春實 文思[illegible] 鄭志成 金光烈 金炳基 一圓▲李萬錫 柳聖雲 宋漢洙 吉[illegible] 禹 申富山 趙仁福 延錫允 李承圭 黃諧淵 宋奉山 朴点陽 朴晶植 趙德行 金淵雄 金東[illegible] 五十錢▲金秉燮 三十錢

天氣豫報

日出 上午七時四分 日入 下午五時三十分

曇一時晴 自二十三日午後十二時 至二十四日午後十二時

京城二十三日正午 五一、四 二十二日最低 四一、七

◇◇◇◇◇ 잔소리 ◇◇◇◇◇

▲덕천가강이래 삼백년동안의긔쇠헐에나는새도 떠러질듯이 일본의 텬하를호령하든덕천삽북머장군으로현재귀족원의장인 덕천가달공작의 큐하나님되는희구라는 스물두살된 처녀가잇다 ▲이와가튼귀한 처녀이낫가그의남편될 사람은 역시그와가튼화족의집귀남자가 안이면 안될것이라고 누구던지 생각하얏슬것이데그는 그런별과 영화를도라보지안코 적막한시골「소전원」에서 장사하는사람의아들「사하」라고하는놈하얏다고한다▲물론이와가튼일에대하야 덕천가의일문에서는 여간반대를하지 안엇스나 주소일념으로 상사하는렬청으로「애」의승리자가되얏다고세상의이목을놀나게되앗다「사랑」의압헤는 지위도금력도 반뎡의힘이업다고 만흔사람의동정을 삿음은지도몰나▲마침떠라셔생각나는것은광산왕후등을배반하고 백작의집 며남이라는것도 거리두어라하고 일시세상에이야기거리가되든백연더사도지금은그의애인궁괴용개씨와자미잇게살남을산다나 이런일이 잘한일인지잘못한일인지는몰으지만은아직조선에서는「노래가작상인무」라고하야스롭만흔「백락련」들을니리만큼되면그만연애니켱사이라고떠들것다

昨日三面下欄에揭載된始興郡永登浦面協議會員當選謝禮廣告中永登浦里『金泰準』氏는『金泰濬』氏의誤植이기玆에訂正함

朝鮮日報社廣告部

◎藥이라면다―藥이아니다

化學的理想的으로嶄新을加하야 生理上適合者라야만藥이다 病患으로呻吟하시는분은考慮할바이로다 獨逸藥品洋行에서需應하는藥은

◎獨逸製治咳丸 原名、익스퓨라소르에나스 價金、一週日分入壹圓五十錢
◎適應症 化痰、止咳、淸肺、潤喉其他肺病神効

◎獨逸製補血丸 原名、쌩노―두디 價金、半月分三圓 一個月分五圓
◎適應症 生血補血、補虛弱、顔色蒼白、萎黃、手足厥冷、病後衰弱其他一切貧血症

◎獨逸製胃病一笑丸 原名、스토마처음 價金、十日分入 貳圓五十錢
◎適應症 年久積滯、痰積、反胃、胃病、消化不良、胃弱等神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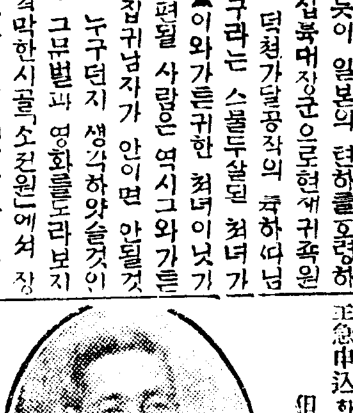
◎獨逸製內服六〇六 原名、에!할 價金、一週日分入 參圓五十錢
◎適應症 第一二三期梅毒、梅毒性瘡疾下疳其他諸症

輸入元 京城鍾路中央青年會館內 獨逸藥品洋行
發賣元 玉田洋行

◎各地分院長募集◎
▼第二回靈子治療術養成會▲

今回靈山式靈子術을廣告키爲하야左記와如히養生하야各一部에一個所의分院을設하고分院長을置함 本院靈子術은社會一般의術과는全然히異하야養成을受한以上은何人이든지直히治療에從事함을得하는極히教授簡易한療法이로다 今에半島에서醫術의効을시難病에苦하는人士가多함으로本院은是等의難病者를救濟키爲하야全鮮各郡에一名의分院長을置하고其治療를施行코자함 如何히効力을有하야確實히全快되는것은旣히今日迄의治療患者의賞讃에依하야證明되오 至急申込하시오 養成後에는卽時現地開業되야月收二百圓以上確證함 (靈子長七六五)

但人員에定數가有하야申込順에依하야採用함


蒙瀨靈山

申込期限 十二月五日限
申込所 靈子治療院總本部
養成科目 一、自己精神修養一般 一、靈子療法 一、氣合 一、催眠療法 一、精神療法 一、食餌
講師 靈子治療院本部長 蒙瀨靈山
養成期限 十二月五日부터二十日間 (每日午後七時부터十一
養成會費 金五拾圓 (但前納할일)

京城府櫻井町一丁目二番地
靈子治療院總本 電話本局二八三七

◎今回에는各自의希望地에採用홈

十二月二十日부터三十日까지
防寒外套類大賣出
賣出品目 외ー투、周衣次、만토、學生外套、돔비、小兒만토、毛布、其他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丁子屋洋服店
休日廢止每日午後九時迄營業
電話本局 二一三 二〇〇 六九〇 番

夢중中夢 (五六)
朴永德 譯述

「자ㅣ이것을ㅣ」하고정실의압흐로
내여민다
「엇더케하란말이야」
「네가밧는단말이냐」
「그러닛가너한테는 안이판단말
이지어되그림은돈을거슬너내일
돈이잇서야지」
「거슬느는것이무어이나 그림두
장갑으로이돈을줄터이야」
「무어야 네그림엽서는한장에이
권식이다 빗사다고 하는사람의
게는일권이라도조흔데」
「그러치만빗사게하면 네가조치
안으냐」
「실타나는그런부당한일은 안이
한다 한장에이권하는엽서를 오
원식이나밧고나는팔지안이한다」
「부당한일 안이부정한일이라니
?」하고 정실이는목을길게빼고
두리번々々하더니 얼는다시
「안이그러치안타 보통가々에서
파는인쇄물가튼것은일정한갑이
잇스닛가 그것은 정가이상으로
산다고하면부당한일이라고하겟
지만은 이그림은네가손수 그린
것이닛가 가령말하면 족자나
병풍그림가지역이겟다 나는그
림엽서로역이고사는것이안이요
한갓그림으로알고살터이다 웅
그러케팔면다시부당한일은업겟
지」
「하지만은어모리하야도이 그림
은한장에이원오십전식이나바들
가치가업는것을」
「암만너는그러타하더래도 나는
갑치잇는줄안다 그림을 보난
사람이모다다르지안이하냐나는
이엽서한장에이원오십전에가치
가잇는 줄안닛가 이원오십던에
사는것이다 너도파라줄것 이면
조치 안이하냐 아바님이병환도
나셧는대」
정실이는 정일이의 그다정한호의
를저바리기어려웟다 그러나 또나
히도얼마안이되는동무가불것업는
엽서를사서주며 부친의 병환에보
태여쓰라는말이무엇보다고마웟다
로 정일이를보며 웃고잇섯다
「정실아안심하고 바더다오이돈
은어제셔울셔떠날때에우리어머
니가쓰라고 주신돈이다 그러니
아모근심할것이안이다어서안심
하고바더다오」
「어머니가 주신돈으로실데업는
그림엽서를이한오십전식이나주
고사가면무엇이라고하시나」
「안이다우리어머니도 갓거하실
나너의이야기를드르시면매우칭
찬하실것이다 고칭찬을하실걸나는이엽
서를 가지고가서 우리어머니의
게보힐터이다」
정실의눈에서는 아지못하는 동안
에 外닭모를 눈물이눈에고히엿다
(七十五)
조그마한책상압헤던등불케여노코
정실이는 내일나가팔 그림을그리
인다 밤도졈々깁허지고 여관주인도
미에도침방으로 드러갓다 정실이
는그림을그리다 말고 인할지를쓰
내여편지쓰기를시작한다
물론그편지는 자긔부친의게 보내
일편지이다 부친의게 오는편지는
자긔손에만쳐본젹이한번도업는소
닭에 부친의주소도 모를일이요편
지를하랴도 돈도업스려니와 중히
조차업섯다 그러나 이번에는엇더
케하면편지를 한번하야 보리라
하야 편지를쓴다 그리고편지와갓
치보낼것은 돈오환이다 오날차정
일의게어더가진오환자리한장은정
실의품속에깁히숨겨잇섯다
오환돈이 비록적으나 도한푼업는
아바니의병을치료에만은보태미이
되겟다 이곳을떠나 셔울로가실때
에송뭇뎡도미에가돈을내여노흐며
나의은혜를 아라주어야하는등 손
뉘하나아는사람업는그곳이러니저
러니하야도 돈이들것이다 그러닛
가 오환돈이부친의게 가기만하면
실로히긴히쓰실것이다
경성쇠무란쓰병원안과치료소라고
것봉을쓰면 설마 안이드러갈니가
잇나하며 호자생각을하고 정실이
는 나숙한은문체로 편지쓰기를시
작한다
「아바님ㅣ 아바님께서는날마다
저의게 편지를하시겟지요 저를
그다지도사랑하야주시던아바님
의그리운편지가엇해것체손에드
러와본적이업슴니다 이곳을 떠
나신후 저는아바님의 소식을듯
지못하야 참으로 말나죽을것갓
습니다병원에서치료를하시고게
실줄은밋고잇슴니다만은편지를
보지못하야 날마다 견댈수업시
갑갑합니다ㅣ
아바님의게신곳을몰나 져는 편
지조차못함니다 아바님께서도
저를얼마나생각을하고게십닛가
날마다 데부가오면 아바님께서
하신편지가왓나하고기대리면번
번히 그저가고맙니다 참으로
미처죽을듯십허 편지를 함니다
용서하야주시옵소서 져는아모
탈업시 이곳에서 여관심바람을
하고잇습니다 오아미상도 매우
친절하게하야줍니다 요진에하
로는 삼미션이가하는것을 배호
라고하는것을 베울수업다고 하
닛가 역시그림공부를하라고 하
야요사히는 그리고잇슴니다 그
리고지금은 그림엽서를 그림니
다

仁川府來年豫算 大體가平凡하다고

仁川府來年度豫算은材料의蒐集調查를맛치고實際編成에着手하엿다는데其方針은元來緊縮的態度로別로히新事業은無하고大體가本年度와다름업는데各種目別로見하면一般經常部事業상에[illegible]하며

水道事業 은豫定事業外에新事業이別無하나釀業津水源池와仁川配水池間送水管의漏水가甚함으로來年度부터繼作하야數年間繼續事業으로鐵管을將換하고저하는터이라하며

土木事業 은新道路와下水道의新計劃은無하나都市計劃의關係上突的的事業은不無할지나이리서지는新事業이無하고例年과如히諸

學校豫算 은年々入學兒童의增加를서라도積極的施設의必要를感한다 그러나財政의關係로不得已案縮方針을執하는터이며新學期부터는新築校舍竣工과共히兒童收容上에는多大한緩和를見하겟스며來年度부터數年間繼續事業으로增級計劃도漸次實現케할터임으로諸經費는自然膨多할지니府民負擔에在한增加될것은必然의事이겟이라(仁川)

維新團巡廻劇의盛況

全北龍安維新靑年會에서는數日前에該會經營인勞働夜學校를擴張할目的으로素人演劇團을組織하여가지고地方을巡廻하며多大한歡迎을맛고去十八日江景에到着하여十九日々지兩日間을當地大正座에서興行하엿는데맛참雨天임으로觀衆은不過三百名이나同情이잇섯는데同情金과氏名은如左하며一行은二十日午前十一時發列車로裡里로行하엿다더라

尹吉重五圓　李鳳均　金相德
韓承敎三圓　安商說　俞甫汝
各二圓　尹成淳　池相高各一圓
(江景)

傳道部主催大講演

平壤崇實大學生基督敎靑年會傳道部主催로金昶濟氏를請邀하야去十八日上午十時半에崇實中學校講堂內에서目下朝鮮에三大問題라는演題로二時間熱辯을吐하야八百餘名聽衆의게莫大한興感을與하얏다라(平壤)

金剛氣象實測 仁川觀測所에서

仁川觀測所技手金泰榮、七田兩氏는金剛山諸般氣象의實地를觀測調查코저去十月二十四日에仁川을出發하야二十日間에內外金剛을實地踏査하며온갓調查를맛치고歸任하얏는데前記金技手의談에依하면來年度부터는數日間에一次二式內外金剛의氣象觀測을重要處에發表코저計劃하는中이라더라(仁川)

福溪市場開市

平康郡平康面福溪里市場의許可를苦待하던바本許可를數日前에得한바本月二十一日午前十二時에開市式을擧行하얏다더라(平康)

崇仁校新建築工事

平壤에私立學校中崇仁學校(元崇德學校)라하면第一位에居하는學校라本校는三十年前부터純全한朝鮮人으로經營하는바爾來本校에서相當한人材를養成하기가四百餘名에達하얏스며現在籍生徒數가數百餘名에至한지라最初本校는現崇德學校敎室一部分을借得하야經營하얏스나年々이激增되는生徒數와驅蕩되는文明의思潮가半島江山을鼓動케하는今日에一般學父兄側의一般耶蘇敎長老敎徒는熱烈한思想下에本校를永久히維持할것과朝鮮敎育界에元祖가되며本校로써朝鮮社會를革新할目的으로數年前부터新築經費義捐金을募集한바有志로부터寄附捐出한金額이三萬餘圓에達하야本義捐金으로써基地三千餘坪에三層洋屋을華麗하게建築工事中인바來年四月中에工事를終了할豫定인바落成同時에는六百餘名을

羅災同胞生還 祈禱會

黃海道載寧出身으로東京留學生學友會에서는過般關東震災로因하야羅災한同胞의生還을苦待하는뜻거바암으로今月二十日午後七時브터邑內東部禮拜堂에서黃世門君의司會下에新禱會를開催하고金龍雲氏가新禱한後에宋明鉉氏의(언제나오시나나)라는獨唱이잇고李永煥氏의新禱가잇슨後에韓寬淑氏와[illegible]氏의所感談이잇스며[illegible]氏의뜨거운[illegible]이잇고로長時間新禱한後에無事히閉會하얏다더라(載寧)

儒林團體의好事業

黃海道載寧郡儒林團體의機關으로組織된明倫會에서는郡內의知識과德望으로有名한閔世鎬、林奎憨、李鍾鉉三氏를講長으로選擇하야每月數次式鄉校明倫堂에서孔子聖蹟圖에對한敎演과道德大義에對한講論을開하고郡內士林中靑年子弟와文昌學院生徒들노하야금聽講케함으로修養의效果가多大하다라(載寧)

消防組聯合大演習

平康郡에서는本月十九日午前九時三十分부터平康、福溪消防組가聯合하야典仲里에서降雨를不拘하고盛大히大演習을擧行하얏더라(平康)

關北佛敎靑年會

關北佛敎會에서는去十一日에奉佛式을擧行하고곳靑年會를組織한바業進行함에는新舊思想이不一할것은우리社會가公認하는바라故로幹部一同은此를覺悟하고從後부터新進事業은靑年會에一任하고舊式人士에對한諸般老人界에서一任하기로하야一致可決을得한後靑年會를創立한바絶對로本會의目的은宗敎를本位로하고實力에誠心努力하야靑年에智德體의啓發向上에一大努務하기로目的하는바該會의會員은極히實行할人格으로入會를許하야實行的會團이되기로目的을定하야創立된바幹部의氏名은左와如하더라

會長姜鶴來　副會長安鎬燮　總務李範大　林昌甲　吳萬石　李庚德　智育部姜貴得　尹正龍　鄭達龍　體育部金昌一　李守彦　金永吉　書記俞乙沙(羅南)

安州平栗敎會祝賀

安州郡東面平栗耶蘇敎會에서는去十八日午前十二時에兪仁相氏의司

咸興藝術界의曙光

咸興郡咸興面豐陽里에居住하는池斗漢君은平素부터藝術에對한만흔趣味를가젓슴을根한이라新演劇에對한天才的技術이豐富하던바今般新舊劇團이라는劇團을組織하야新築中인市明劇場의落成式을기더다大衆의文化를宣傳코저同劇場內에서第一回로三日間大興行코저計劃中이라더라(咸興)

商業會議員改選

平壤商業會議所에서는來十二月一日午前十時부터左記와如히定期評議員을改選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

朝鮮人十八人、日本人二十人(平壤)

金舍音의不公平

舒川郡馬山面新碧里居金以斗는京城居閔泳植氏의土地舍音人(現管音)인바該附近一帶에잇는土地를例年보다賭租를每斗落에二斗式加捧하기로各小作人의게契約을맛되만일此에不應하는小作人의게는小作權을移動한다고一般小作人은此를憤慨히생각하고當該警察官駐在所에等訴하얏스나當局으로부터賭租捧을制止하얏스나該舍音金以斗는一向不應하고請求에反抗하는小作人을移作하기로主張함으로一般小作人은舍音의不公平을非難中이라더라(群山)

光陽牛市場移轉

全南光陽郡에서는本月二十四日에牛市場一層擴張과一般市民의便利를圖謀키爲하야位置를同郡同面七星里에移轉하고餘興으로競牛와鬪戰大會를擧行한바賞品과等級은左와如하더라

一等一點(十八人勝)一組)農牛一頭
二等二點(八人勝)一組)各白木一疋石鹼一個式
三等四點(六人勝一組)各鋤一挺式
四等十點(五人勝一組)各鋒寸一箇手巾一枚
五等二十點(四人勝一組)各鉛筆五本
(光陽)

崇大靑年會新禱會

萬國基督敎靑年會同盟本部에서오는新禱의結果各靑年會々員과其他信徒를모와聯合하야一週間特別新禱會를開催하기로決定히얏는데此에因하야平壤崇實大學基督敎靑

杜洞耶蘇敎堂進興

全北益山郡聖堂面杜洞耶蘇敎會는該地各信者의熱心으로新設한지一個年未滿에敎友가日增하는바今月二十一日부터一週間進興會를開催하고大々的으로傳道하는데同郡帝城里와富谷里兩敎會에서도同心協贊하고命收師重洙氏의講演으로設行한다는데同里朴在新氏가醫師一坐와其他費用을誠心寄附하엿다더라(益山)

고同仁普校在職中인馬相學氏는本月十五日에親喪을當하야高陽郡自宅에서謹愼中이라더라(仁川)

光陽懸賞討論會

全南光陽靑年會에서는智識을啓發하기爲하야本月二十五日(日曜日)午後一時부터現社會에發展에는金力이냐團結이냐란問題로討論會를同靑年會館內에서開催한다는데賞品은一二三等에分하야各一人式으로賞與한다더라(光陽)

權世重氏의葬式

仁川公立普通學校訓導로在職이든權世重氏는旣報와如히去月二十日附로抱川公立普通學校로轉任되엿섯는데其際赴任하기前偶然罹病하야市內佐藤病院에서治療中이든바去十九日午後五時에不幸히逝去하얏는데今井仁川普校長과一般職員及親戚의幹旋으로葬式을擧行하얏

堂山俱樂部의發展

永登浦堂山里所在堂山俱樂部는去大正十年春에當地靑年有志의發起로會員의親睦과運動獎勵及敎育普及을目的하고設立하엿는데創立以來今日에至하기까지斯界에功獻이多大한바現在夜學生은四十餘名이오敎師는趙熙彰、崔秉燮兩氏이라더라(仁川)

安州에代書共同營業

本月十三日午後七時에安州郡安州面七星里立道澈氏家에서安州代書業者立道澈、李興潤、立奎弘、李貞燮、韓殷植、吳珙[illegible]氏가會集하야業務의便宜를圖키爲하야代書共同營業을決議하얏는데今後부터는同一한場所에서業務를執行하며利益을一亂篤하며共同營業은來月十五日부터實行하얏다더라(安州)

振威靑年諸兄에게 絶叫하노라

平澤支局 朴亨國

振威靑年會의出世한年齡은未詳이나(此[illegible])本筆者가名野을둣기만六七年前으로追憶된다그러나今에至하도록何等事業의實現을못보메對하야는皆도一滴의血淚를禁치못하며싸라서靑年會諸兄에게一言을告하노라

아!靑年兄님덜이여!이怨恨만은懷抱를誰에게訴할가요우리는淚가有하나마음데로흘여지못하고口가有하나言論의自由를未得하며不但者난안이어이마는一身을恆常拘束下에잇는中더구나無產無識의悲運에잇다그러면엇지하여야이갓흔塵境을넘고苦海를지나樂園의善果를어들가이것이先頭의問題일다

오ㅣ靑年兄님들이여 올지말고우서리우리도能히될수잇다目下의現像은몰서에안는것이悲觀인이며그것이怨哀안이미업다그러나이無產無識을一拳으로打滅하고榮光스러운勝利의凱旋歌를부로자면그우잇보다新文明의建設이急先務라한다

보라 五個星霜을繼續하야 우리의耳目을놀내이던慘酷한歐洲戰亂이끗나고平和의今日을迎하니文明의潮가釜山港頭에부드치고時代의바람이白頭山을넘어亞細亞洲한모동이에갓게닷처잇던半島山川의門이열이기始作하며모든新思想과모든新知識이洪水갓치밀여옴을싸라民立大學도우리가絶叫하지안는가?

아!兄님덜이여 黑帳幕속에깁히든잠을재다두눈을비々고東天에소사오르는曙光을좀보라 그리고귀먹한두귀를쑥시고西闇에오란한새벽鍾聲을드러보라我五千年歷史를背에負하고二千萬神聖한民族의運命을開拓하며我一般社會를幸福의場內로指導코자三千里廣濶한舞臺에서急呼疾聲으로活動할者가누구냐者는오직二十世紀新靑年이그適任者라고敢히言코저하노라

아ㅣ靑年兄님 굽어며 反省하라남에는二步三步를行하거던우리는一步라도 前進함을期하라 諸般產業을發展시히지안이하면二千萬의生靈은다餓死할것이다敎育機關을設備치안이하면멧十萬의兒童은盲啞가되고말것이다 時代를맛는 兄임덜이여 奮鬪할지어다 靑年兄임덜이여 努力할지어다 思潮의波及은時로激增하고生存의競爭은日로劇烈함에棟宇에處한燕子갓치미칠火光을보고旭日東昇을모르며釜中에魚子갓차끌는물을몰으고春氷溶解를의심하는猶豫와恰似한靑年兄임덜이여 思潮의眼鏡을쓰고 醒醒하야 이거던躊躇치말고熱誠을結晶하야遂遲한籽米에져어도我半澤新社會와新生命의開拓함에貢獻이만은靑年會를復興刷新케할지어다

一隅地方의展發에비록些少하다云할지나其實은現下朝鮮新文化建設上極히最大要務라하겟도다地方靑年의文化建設을쌋라朝鮮도漸次새로운朝鮮이되지안을가?此筆者는지금에붓을놋슴니다오로開하노니져ㅣ五里霧中에彷徨하는白衣民族의前途를開拓할이가누구고靑年兄임들이여!

安州平栗蹴球大會 紀寬學校主催로

安州郡東面平栗紀寬學校에서는本月十六日에蹴球大會를開催하얏는데當日은날이寒冷도不拘하고會集한觀衆은大略數百名으로人山人海의大盛況을呈하얏스며當日에參加團體는紀寬、東明、西山의三團體이며最後에月桂冠은紀寬學校로歸하얏다더라(安州)

各協議員選擧狀況

各府郡各面協議員選擧狀況을據한즉左記와如하더라

▲全北全州郡全州面協議員選擧는去二十日午前十時부터全州公會堂에서擧行하야北本松次郞　野口東一　李康元　柳明仲　四氏가立會하고坂本面長　尹副面長　藤谷郡守　石川署長　加藤郡庶務課長　金郡屬　吉津道地方課屬　柳井警察其他諸氏가嚴正한態度로列席한바場內의空氣가緊張하엿고入口에는面吏員이有權者名簿를考準하고有權者朝鮮及日本人을案內하야次第投票케하는中場外에는各候補者贊成人等이多數集合하야人氣가頗히旺盛한同時午後三時에投票를終하고四時三十分頃에開票하니總投票數三百七十六票中有權者外로投票一票無記名二票가잇섯고各候補의得票는左記와如하더라

朝鮮人側四名
日本人側八名

四〇 大坪三津男(新)▲三三 金乘淳(新)▲三三 三浦陽吉(新)▲三〇 崔昇烈(新)▲三〇 加瀨雄三(新)▲二六 印昌桓(新)▲二六 大木良作(新)▲二六 松本福市(新)▲二二 山本悅藏(新)▲二一 李海晩(再)▲二一 武內克次(新)▲二〇 山下猪三郞(再)▲一六 李駿象▲一四 李圭南▲一三 鄭玹謨▲一 柳明仲

▲群山府協議員改選에際하야全市民의有益을爲하야相當한人格을被選코저市民大會를開催하엿다함은已報어니와市民의希望如何는不拘하고一時名譽를取코저暗中飛躍的大活動者도有하엿스나結局落點되고府民全般이希望하던趙重煥　邊光鎬兩氏가當選되얏슴으로府民一般은歡迎한다하며(群山)

▲忠南江景에서도去二十日에預定과如히面協議員選擧를하엿는데當日은午前七時부터面事務所附近道路에는候補者들이各其設幕後候補者의看板을大字로써서세우고定刻인午前九時부터面事務所前에는人山人海을成하얏스며面事務所에서坂上面長과立會人드은道廳과郡廳員과其他民間側에서朝鮮人二人과日本人이立會하야投票하기를始作하야午後四時까지맛치고立會人이立會한後選擧된協議員을發表하니氏名은左記와如하더라

朝鮮人側
鄭希源氏가二六點으로當選
[illegible]斗翰氏가十七點으로當選
[illegible]良立氏가十四點으로當選
朴齊元氏가十一點으로當選
日本人側
小林政助氏四五點으로當選
中井豫造氏二八點으로當選
下條安三郞氏二七點으로當選
西島寅吉氏二六點으로當選
岡藤作一四點으로當選
谷口豐太郞氏二三點으로當選
(江景)

▲永登浦面協議員選擧는旣報와如히去二十日午前十時부터同面事務所에서擧行하얏는데有權者總數二百六人中投票數一百四十三人인바其內에九票가無効이엿다하며當選된氏名과得票數는如左하더라

▲二十九票川崎▲二十一票豐田▲十四票村田▲十四票金健興▲十三票俞泰準▲十二票富田▲九票朴敬善▲六票俞泰運▲二票盧鍾成▲十二票長島(仁川)

▲慶北金泉에서는本月二十日午前十時부터當面事務所에서開會하고該面內一般市民이會集하야投票選定하엿는데日本朝鮮人合十二人으로選擧하고午後四時頃에閉會하얏는데當選人의氏名은如左하더라

裵庚潤十八點　李慶一十七點　黃健秀十五點　洪在淑十五點　李相寅十四點　倉成熊助二十八點　渡拾藏二十三點　伊藤季薰二十二點　福岡直助二十二點　正井秀之十九點　高崎平吉十八點　山本六蔣十八點(金泉)

▲光州面々協議員十二名의總選擧는去二十日午前十時부터光州面事務所에서擧行하얏는데定刻前부터雲集하는觀衆은多數에達하야朝鮮人日本人各候補者의參謀들은必死的運動을開始하야年來稀有의壯觀을呈하얏고午後四時々지에投票를맛치고同五時에開票하얏는데有權者總數四八二票中投票總數四〇三票(無効三票)로得票數及氏名은如左하더라

○印은當選者

○三三票立俊鎬、○三六票金相淳、○二六票李兆瀜、○三二票吳憲昌、四票俞衡玉、○三〇票朴癸一、六票張璟斗、一票李哲周、一票陳在化、○三三票谷口隆、○三一票坪井盛太、○三九票松井理三郞、○三一票藤本一二郞、○[illegible]票佐藤秋藏、○二七票諸山[illegible]、○三八票島村民衛(光州)

▲昌原郡鎭海面에서는去二十日面協議員을選擧하얏는데織田面長及洪範祉氏外三人立會下午後五時에開票의結果左의十二人이當選되얏는데其氏名及點數는如左하더라

大本宇市三十一點　齊藤稔輔二十八點　山下勘四郞二十六點　金璋圭二十一點　伴昇二十點　岡田太郞市二十點　山本忠二十二點　禹英珍十九點　金秉一十四點　金秉玉十一點　金時道五點　無効五點(鎭海)

▲旣報와如히本月二十日에擧行한釜山府協議員選擧는開票한結果와如히決定되얏는데李祀道、文尙宇氏外日本人十八名이더라(釜山)

▲咸興面協議員選擧는朝鮮人日本人間에各其暗中飛躍하야豫備選擧아지有하야運動이激烈하던바去二十日에該面事務所樓上에서同午前八時부터下午四時까지投票를畢하얏는데朝鮮人有權者四百五十七人中에二百二十二人이投票하고日本人有權者二百二十七人中에百二人이投票한바鱗次繼續하야同四時에開票한바그當選된氏名은如左하더라

金璜　鷲坂圭稅　畑本逸平　寺本幸太郞　金洙根　張昇河　劉柄義　朴豁夏　洪兆鎬　金舜晳　金魯善　金山福太郞　九貫政二　洪聖淵(咸興)

▲晉州面協議員選擧는去二十日面事務所에서執行하얏는데當日은早朝로부터各候補者는選擧事務所外에多數한後援者와共히會集하얏스며有權者四百餘名中에서三百三十五名의投票가잇서서同日午後四時에開票한結果當選者氏名은如左하더라

卓正漢　姜順世　李範稷　姜炳漢　鄭台範　申鉉游　光野佐助　松浦利三郞　杉亨　羽田鎬三　北川戊二郞　森島恒昭(晉州)

▲全北益山郡益山面協議員選擧는預定과如히實行하엿는데投票所는郡廳前街路邊側에는日本人側의選擧事務所를設置하고各々有權者를得하랴고活動하는것도壯觀이엿스며朝鮮人側은聯合으로事務所를定하고投票가始作되엿는데日本人有權者는百六十七名으로六人의協議員을選定케되고朝鮮人은百十二人의有權者로五人을選擧케됨으로當日은日本人朝鮮人間의合十人의協議員을選定할터인바後補者는十一人을投票케된故로此가兩方競爭의導火線이되여內面에는雙方이大活動을하며彼此投票의針을探知하며午後三時ㅣ畢하고開票를하게되며一人의後補者가加하엿스나平均이니二十八點式은되고朝鮮人은二十二點의平均임으로日本人의六人選擧가勝利할것을預測하고朝鮮人側에서는一時大落望이엿섯고當選된人名은如左하더라

金和炯　李泰敎　馬賓洪　文炳玉　李根秀　土東仁作　古川千代吉　扇米助　橫道只之助　靑田升治(益山)

全南警察部長巡閱

全羅南道警察部長은高等警察課長과保安衛生司法各課長을隨行케하야管內各署에對한警察事務執行狀況을檢閱키爲하야第一着으로去十九日長城警察署에來到하야實地檢閱에着手하야二十一日午後에지事하고同四時十二分發列車로光州를向하야出發하얏다더라(長城)

兩校長의送迎會

平壤官立高等普通學校敎員及生徒一同은去十九日下午一時에本校講堂內에서歡迎式을擧行하고司會下에前校長田中立黃氏送別辭와新任校長富田鉉二氏歡迎辭를朗讀한後兩校長의答辭가了하자前校長의게紀念品을寄贈하고一同의寫眞撮影이有하얏더라(平壤)

新舊兩所長送迎

釜山地方法院東萊出張所長今野榮之進氏는今回釜山法院으로轉任되고宜寧登記所長原野鎌次郞氏는東萊에赴任하엿는바十九日午後八時에官民有志三十餘人이會同하야右兩氏의送迎宴을盛大히擧行하엿다더라(東萊)

校長의失態로盟休

慶南昌原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九日에同校五學年生一同이同盟休校하얏고翌十日은四學年生一同이또한休校하얏스며又十三日에는三學年生一同이休校하얏다는데學校側에서頭痛됨은勿論이어니와學父兄側에서도此를大驚하야一般生徒의게就學을勸諭하얏스나何等의効力이無하얏다는데其理由를探聞한바에依한즉同校大谷校長이就任以後로生往에對한取扱이卑弱하야失嚴된것이一再가안이며校紀가紊亂될만한秘密의事件도有하며諸般處務가舊殼을脫치못한時代의逆行이有하야此를生徒側에서어더서지肅淸하기로主張하야事態가容易히解決되지못할것을覺悟한口石郡守도道廳當局에對하야善後策을交涉中이라는데一般輿論은現代敎育界에서이러한不祥事가續出함은敎育家에對하야頗히注目할바이라더라(鎭海)

方魚津防坡堤起工式

方魚津防堤破工事起工式을本月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方魚津에서擧行함에對하야和田慶南知事로부터本報釜山局長의게案內가有하다더라(釜山)

朝鮮軍司令官來甲

朝鮮駐箚軍司令官菊池氏는北鮮地帶沿岸邊駐屯守備隊를視察키爲하야本月八日에北靑自動車로甲山邑을通過하야惠山鎭에來着하야一般軍政을視察하고十一日發自動車로歸程에登하얏더라(甲山)

全南道知事視察

全南道知事元應常氏는去十七日下午五時에全南求禮郡邑內에到着하야各郡各地에서猛烈히運動하는南鮮鐵道架設에對한形便을一々査聞하고郡守와人民의內政을視察하고翌日午前十一時半에慶南河東郡을向하야出發하얏다더라(求禮)

富寧靑年會創立總會

咸北富寧에서는有志諸氏의發起로去十三日에靑年會創立總會를開催하야幹部를組織하얏는데智育部主催로곳勞働夜學을設立中이라하며幹部氏名은如左하더라

會長崔鍾弼　副會長李源度　總務李源燮　德育部長張斗炯　智育部物部長[illegible]　產業部長姜兆衡　以外長陸世榮

會員五十餘名이더라(羅南)

十月中犯罪人數

東萊警察署十月中犯罪人數는左와如하더라

文書及印章僞造犯二、賭博及富籤罪一四、傷害罪九、竊盜犯六、詐欺罪九、誣告罪二、暴行犯一、名譽毁損一、業務妨害罪一、贓物에關한犯一、森林令違反犯二、墓地規則違反犯一、特別犯三、(東萊)

新刊紹介

●書籍雜誌의紹介를願하시는諸氏는朝鮮日報社編輯局內新刊紹介係로冊子를直時보내시오

▲旅行案內(朝鮮文第九號)　定價一冊二十錢　發行所京城府齋松洞八十二番地京城旅行案內社

▲라쓰思想의眞相(罷行本)　定價十五錢　發行所京城府堅志洞八○番地朝鮮靑年會聯合會

辭令塔

▲인천아희들의작란이란참말알수업는바이다▲아희들이엇지도심한지남의집에뛰여들어가서가진못된짓을하는것은오히려어린것이라고참을수가잇지만인천시가에는쳐々에서어린아희들을돌팔매질을하여단이기에도위험하다▲지난십칠일오후다섯시에경성에사는「포천류」라는녀자가인천에볼일이잇서 내려왓다가 일을다보고경성으로회환코저뎡거장을향하야가는길에몽강정근처를지날때에난데업는돌이녀자의왼편눈을따리엿다▲엇지몹시마쳣던지정신이깜박하야그자리에펄석주저안저잠시는정신을이졋다가겨우정신을차려본즉눈에서피가새여물솟듯하여즉시병원에를가서치료중인데아모리하여도그눈은완전하여질희망이업다나▲이녀자는락미지액으로이갓흔불구자가되엿슴을매오한탄하며자못마음이불안한모냥인바어린아희의작난으로인하야리분푸리도못하고애를쓰던바이라한다▲그런데인천경찰서에서조사하야돌던진아희를차졋는데그아희는시내몽강정이십륙번디에사는「류현준」의셋재아들「삼동」이란아희라한다▲그럼으로경찰서에서는류현준을불너그아들을단속하라고엄중히설유를하엿다나▲불의에돌을매에눈한짝을업샌녀자도동정을마지안이치만아들잘둔덕분에어매히우지람을바든류현준이도원통할걸(인천특신)